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 INCHEON

2004 | 03

인천유나이티드FC 창단

## ‘블루하트’ K리그 정복 암호명

시티투어 버스타면 볼 것 수두룩  
여성인력개발센터 통한 직업찾기  
낮은 데로 임한 때밀이 목사님



# 생전예수재 및 선망부모 천도재 봉행

생전예수재란 살아서 지내는 사십구재로  
살아있는 이가 자신의 사후 복락을 위해 윤달에 행하는 신앙의례입니다.  
생전예수재는 생전은 물론 사후의 행복까지 함께 추구하는 의례로서  
삶과 죽음을 끊임없는 연속으로 보는  
불교적인 사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02년 티베트 전통 불화인  
칼라차크라 만다라 제작시연모습  
(현재 보각사 큰법당에 봉안)

- 입재 : 2004년 3월 1일(월) (음 2월 11일) 오전 11시
- 회향 : 2004년 4월 18일(일) (음 윤 2월 29일) 오전 10시

대한불교 조계종 철마산 보각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산 98-9 Tel. 032)522-8131, 524-8131



- 04 窓 2004 | 봄이다, 봄마중 가자
- 06 Go! Incheon | 인천유나이티드FC 공식 창단
- 10 현장속으로 | 시티투어버스 무료체험단 동승기
- 12 Map & Site | 새 시티투어 버스 노선
- 14 우리고장 에듀테인먼트 ⑤ | 강화 곤충농원 벚스투유
- 16 in. Stage | 악극 <미워도 다시한번> 외
- 20 파이팅 인천 | 2004 인천스포츠
- 22 정보뱅크 |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관련 강좌
- 25 청공청해 인천의제 21 뉴스
- 26 굿인천 굿뉴스 | 인천시 재정운영, 건전하고 안정적 외
- 30 브리핑 | 투자유치 위한 중국·싱가폴 방문
- 31 의정소식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회도서관 자료 열람 외
- 32 함께 나누는 세상 | 목욕자원봉사자 방송배 씨
- 34 과거로의 시간여행 | 아기 '뽀뽀'를 찾아라
- 35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명동보리밥·별미정
- 36 테마가 있는 골목 ③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
- 38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③ | 일제강점기의 은행들
- 42 우리고장 우리기업 | 삼공기어공업(주)
- 44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세번째 사람 | 채성병 시인
- 48 Youthzine ③ | 계양고 미술동아리 I-Ris
- 50 굿모닝 어진이네 | 시티투어 편
- 52 Healthy Life | 만성통증
- 53 독자마당 | 우리반 입학생 외
- 56 Info Box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외
- 59 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⑩ | 이철명 <강화의 아침>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3 (통권 123호)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3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박상영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김정식(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봄물이 오른 인천대공원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 바다 건너 오시려나 산 너머 오시려나



잔뜩 버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겨우내 꿈쩍도 않던 새순은 날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껍질을 뚫고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겨울의 뒷그림자에 가려 아직 제 빛을 온전히 내지 못하지만, 봄은 일찌감치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터를 잡고 들어앉았다. 속내야 그렇다 치고, 봄 기운을 온몸으로 만끽하려면 어서 어서 들로, 산으로 나갈 채비를 해야지. 어떤 이는 봄은 바다 건너 오는 것이라며 **월미산 정상에 올라 인천앞바다를 건너 오는 봄**을 맞이하겠다고. 날 따듯한 오후, 한 손에 걸옷을 든 채 느릿느릿 산을 오르다 보면 봄은 어느덧 목전에 와있을 것이라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이는 **계양산만한 봄마중 장소가 없다고 말한다**. 꼬슬 꼬슬하게 잘 익은 밥알같은 흙을 밟으며 산에 올라 인천 시내를 서서히 점령해 들어오는 봄을 지켜보리라...고 버른다. **인천대공원도** 괜찮고 **청량산**, 혹은 **자유공원도** 좋겠지. 아니면 내친김에 **강화 들녘**에 피는 봄아지랑이를 보러 드라이브를 떠나도 그럴듯하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또 어떠리. **봄엔 무얼해도 다 봄마중같다**.

글 \_ 박상영





# 암호명 '블루하트' K리그를 정복하라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캐릭터 '유티(Utti)'는 인천을 상징하는 시조인 두루미를 친근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붉은 머리털은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며 큰 날개는 인천구단이 프로축구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드디어 출항이다. 2004 K리그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 인천유나이티드호가 3월 1일 힘차게 닻을 올렸다. 더욱이 '블루 하트(Blue Hearts)'를 올해의 캐치플레이즈로 내걸어 인천구단이 올해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블루 하트(Blue Hearts)는 한국전쟁 때 전세 역전의 기틀을 마련한 인천상륙작전의 암호명.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스포츠 문화예술축제를 겸해 열린 창단식에는 인천이 낳은 연예인 3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고향에서 열린 잔치를 더욱 화려하게 빛냈다.

창단식에 이어 인천문학경기장에서는 탤런트 최수종 씨가 이끄는 연예인 축구팀과 인천생활축구연합회 임원진들과의 오픈 경기가 열려 흥을 돋우었고 뒤이어 첫 공식경기로 인천 유나이티드와 일본 J리그 6위팀인 감바 오사카팀이 친선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한국 프로축구 13번째 구단으로 출범한 인천유나이티드는 조만간 한국 프로축구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1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중인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단이 '월드 오브 윈더스'의 잔디구장에서 런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2 인천 유나이티드의 첼통 수비수 이상현이 연습경기에 대비한 몸풀기 훈련을 하고 있다. 3 전지훈련지인 터키 안탈리아에 3일간 연이어 내린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키퍼가 몸을 날려 공을 막아내고 있다. 4·5 2004-K리그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돌풍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터키의 영웅 알파이 외잘란(4)과 유고의 라돈치치(5) 6 인천 유나이티드의 주장 김현수 7 재치있는 공격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재호 8 잘 생긴 외모와 뛰어난 발재간으로 여성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주호진 선수 9 세계 각국 700여개 축구팀의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터키의 휴양도시 안탈리아 '월드 오브 윈더스 호텔' 현관에서 2004-K리그 선전을 다짐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단.

(사진제공 · 인천일보사)



## 인천 시민의 힘 보여준 시민주공모

지난해 6월 12일, 안상수 시장이 인천시민프로 축구단 창단을 발표한 지 꼭 9개월 만에 공식 창단한 인천유나이티드는 다른 프로축구팀들과는 달리 구단의 주인이 바로 인천시민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시민들은 구단이 재정적인 기틀을 잡을 수 있게 힘을 하나로 모아주며 축구단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지난 해 말과 올 2월에 걸쳐 실시된 1,2차 시민주 공모에서 모두 4만7,000여 건, 195억여 원의 창단 자금을 모아 준 것이다.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시민주 공모에는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서 부평고 출신 월드컵 스타와 유명 연예인, 하와이 교민과 타이페이의 일가족 등 이색 청약이 잇따라 시민주 열기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경인방송 iFM '박철의 2시 폭탄'을 진행하고 있는 탤런트 박철 씨는 부인 옥소리, 네살배기 딸과 함께 각 30만원씩 청약한데 이어 연예인 축구팀 '일레븐'의 간판스타이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 인천구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최수종씨가 2차 시민주 공모에 20구좌(100만원)를 청약했고 탤런트 김인문씨도 청약대열에 가세했다.

부평고 출신 월드컵 스타로 인천구단에 입단한 최태욱과 김남일(전남 드래곤즈)도 지난해 1차 공모에 각각 100만원 씩 청약해 고향사랑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 고서숙 국제자문관 등 교민 20여 명도 40구좌(200만원)를 인터넷으로 청약해 시민주주가 됐고 타이완 타이베이시에서 안경제조업을 하고 있는 왕타광(41)씨 가족 4명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인천구단 시민주를 청약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주를 성공적으로 공모한 인천구단은 또 GM대우-대덕건설과 유니폼 광고 40억 원 및 푸마코리아와 용품후원 4억5000만 원을 계약하는 등 탁월한 마케팅능력을 펼치기도 했다.



## 막강 최고 진용 K리그 향해 뛴다

하지만 뭉니뭉니 해도 인천구단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국내 최고로 꼽히는 월드컵 스타 최태욱을 비롯해 2002년 월드컵 3위를 차지한 터키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 알파이 외잘란을 전격 스카우트 하는 등 35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의 진용이 어느 팀보다 튼튼하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가진 전지 훈련중에 보여준 전력은 인천유나이티드가 올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에 한껏 힘을 실어주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현지에서 가진 8차례의 연습경기에서 3승3무2패를 기록했다.

인천시민과 시, 그리고 구단이 호흡을 맞춰 첫 걸음을 힘차게 시작한 인천유나이티드의 본격적인 기량은 4월 3일부터 시작될 2004 K리그 무대에서 전격적으로 선보인다.

글 \_ 박상영

## 이 선수를 주목하라

### 공격



최태욱 라돈치치 방승환 여승원

- 최태욱** \_ 인천의 아들', '올림픽팀의 황태자'. 부평고 출신으로 이천수, 김남일과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월드컵 스타.
- 라돈치치** \_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청소년대표 출신.유고 1부리그 파르티잔 소속.
- 방승환** \_ 로란트 감독이 "저런 선수가 프로에서 안 뛰고 아직 아마추어 팀에 남아있느냐"고 극찬. (동국대 4년)
- 여승원** \_ 지난해 1학년 생에 불과하면서 대학축구 MVP에 오를 정도로 대학 최고의 스트라이커. (광운대 1년)

### 미드필더



전재호 김정재 이기부 이근호

- 전재호** \_ 키 164cm 몸무게 64kg로 축구선수로는 왜소한 체격이지만 폭발적인 스피드와 근성있는 플레이로 지난해 11월 코엘류호에 합류. (성남 일화)
- 김정재** \_ 키 184cm 몸무게 80kg의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기가 탄탄하고 중거리 솜이 일품. (성남 일화)
- 안성훈** \_ 부평고 출신으로 키 173cm 몸무게 67kg. (안양 LG)
- 이기부** \_ 노련한 볼배급 탁월. (포항 스틸러스)
- 이근호** \_ 부평고출신, 청소년국가대표

### 수비



김현수 알파이 외잘란 이요한

- 김현수** \_ 성남 3연패의 주역으로 수비라인을 이끌 대들보, 프로 통산 285경기 출전 21골을 기록한 '골 넣는 수비수'로 지난 시즌에 K리그 베스트 11 선정. (성남 일화)
- 알파이 외잘란** \_ 터키 국가대표 주전수비수. 2002년 월드컵 참여. (잉글랜드 아스톤 빌라)
- 이상현** \_ 부평고 출신. 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표. (안양 LG)
- 김학철** \_ 노련한 수비수로 정평. (대구 FC)
- 김치우** \_ 올림픽 대표. (중앙대 2)
- 이요한** \_ 청소년 국가대표

## 인천 시민 프로 축구단 창단 일지

###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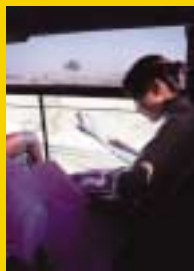
- 6월 12일**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발표 (안상수 인천시장)
- 7월 2일**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추진위원회 발족 및 추진위원 위촉
- 7월 16일** 인천시민프로축구단 발기인 총회
- 8월 1일** (주)인천시민프로축구단 법인 설립
- 9월 2일** 안종복 단장 임용
- 9월 19일~29일** 인천프로축구단 명칭 공모
- 9월 25일** 인천구단 초대 감독 베르너 로란트 감독 취임 회견 '인천 유나이티드' 명칭 공모 최우수작 선정
- 10월 15일** 인천시민프로축구단 1차 시민주 공모 실시
- 10월 21일** 인천축구단 창단 기념 인라인 페스티벌 개최
- 11월 9일** 탤런트 최수종씨 명예 부단장 임명
- 11월 14일~27일** 강원도 속초 전지훈련
- 11월 20일** 1차 시민주 공모 마감. 창단 자금 150억원 확보
- 12월 1일~14일** 제주도 1차 전지훈련
- 12월 12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인천구단 창단 승인
- 12월 18일** 장외릉 수석코치 임명

### 2004년

- 1월 5일~26일** 제주도 2차 전지훈련
- 1월 12일~2월 12일** 2차 시민주 공모
- 1월 28일** 알파이 외잘란 선수 입단
- 1월 30일** 최태욱 선수 입단
- 1월 31일~2월 22일** 터키 안탈리아 전지훈련
- 3월 1일** 창단식 및 일본 감바 오사카 초청 경기 (문학경기장)
- 3월 중순** 선수단 팬 사인회, 기념촬영 등 개최
- 4월 3일** 2004 K-리그 시작







현 장 속 으 로 | 시티투어버스 무료체험단 동승기

## 볼 것 '수두룩' 즐길 것 '푸짐'

인천을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지난 2월 1일부터 노선을 새 단장하고 시내를 누비고 있다. 불필요한 길은 가지 않고 볼거리는 늘렸다. 특히 주 5일 근무 본격시행에 대비해 4월 부터 10월 까지 주말에는 테마관광노선(강화 역사체험&소래포구)이 다닌다. 새로운 시티투어노선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 까지 매일 40명 씩 가족시티투어(공항노선) 무료체험 행사를 가졌다. 체험 첫날인 17일, 시민들의 여행에 동승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듯했다. '가족시티투어 무료체험단' 이 첫 체험에 나선 2월 17일 오전 11시,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은 가벼운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오늘 체험의 주인공들은 네 살배기 안솔 양 부터 88세의 김종현 웅까지 모두 40명. 부모님을 모시고, 혹은 친구들과끼리 삼삼오오 모여 체험에 나선 이들이다. "직접 보고 듣고 좋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자랑해달라"는 박동석 정무부시장의 인사말 겸 당부를 들은 뒤 곧바로 첫 번째 장소인 차이나타운을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인천역 앞에 내린 체험단은 **중국인 거리**<sup>0203</sup>를 표시하는 패루를 지나 중국음식점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대표음식인 '자장면' 이 바로 이 거리에서 태어났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아~' 하는 작은 탄성이 터지고 한 그릇씩 똑딱 비워가며 원조의 맛을 음미했다.

**월미도**에서 **영종도**<sup>82</sup>로 들어가는 10여분 간의 짧은 뱃길에서 시민들은 갈매기와 함께 한바탕 춤을 추었다. 미리 준비해온 새우깡을 하늘 위로 던지면 어느새 갈매기는 날쌔돌이처럼 먹이를 채 갔다. "이렇게 갈매기를 가까이서 본 건 난생 처음"이라는 남숙희(45세 · 서구 심곡동)씨는 너무 인상적이라며 연신 환호성을 내질렀다.

봄이 오는 영종도의 오후는 나른하게 풀려 있었다. 버스는 그 길을 뚫고 **인천과학상설 전시관**<sup>2366</sup>에 닿았다. 공룡, 화석, 홀로그램, 거울의 예술... 자연사에서부터 해양생태, 기초과학, 미래과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면 A부터 Z까지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전시관이라 사람들은 예정된 1시간 여의 관람시간을 한참이나 초과해서야 다시 버스에 모였다.

물 좋기로 소문이 난 **해수탕**<sup>9</sup> 앞에는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단 관광버스들이 진을 치고 있어 유명세를 과시했고 공항 가는 길목에는 바다풀 혹은 역사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세계로 들고 나는 관문 **인천국제공항**<sup>9</sup> 여객청사에서는 비행기만 봐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지 눈 뿜줄 모른다.

체험단의 제안으로 해수탕에서의 잔물 목욕을 포기하는 대신 예정엔 없던 **무의도와 실미도** 구경을 긴급 추가하기로 했다. 섬 까지 들어가보진 못했지만 **가장포**<sup>458</sup>의 모래 둔덕을 서성이다가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천국의 계단 찍었대, 실미도두 바로 저 너머라며~"라고 소곤거리며 두런 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닷바람엔 아직 겨울 기운이 짜게 남아있었다. 바다를 향해 물수제비를 뜨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 앉자 차는 큰 바퀴를 다시 굴리기 시작했다. 해안도로를 유유히 달리며 시티투어버스는 **마시란**, **용유해변**을 지나쳐 **선녀바위**, **을왕리**, 그리고 **왕산해수욕장**을 차례 차례 사각의 차창 속에 담아 주었다.

영종대교를 건너 다시 인천시내로 돌아오는 길, 딸 의연(6세)에게 봄이 오는 바다를 보여준 것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최은숙(35세 · 부평2동)씨 처럼 체험단의 표정은 저마다 오늘 여행의 단상을 헤아리느라 피곤함은 잠시 미루어 둔 듯 했다.

글 \_ 박상영 · 사진 \_ 김성환





**시내노선** (45km, 11:00~16:00, 2시간 소요, 배차간격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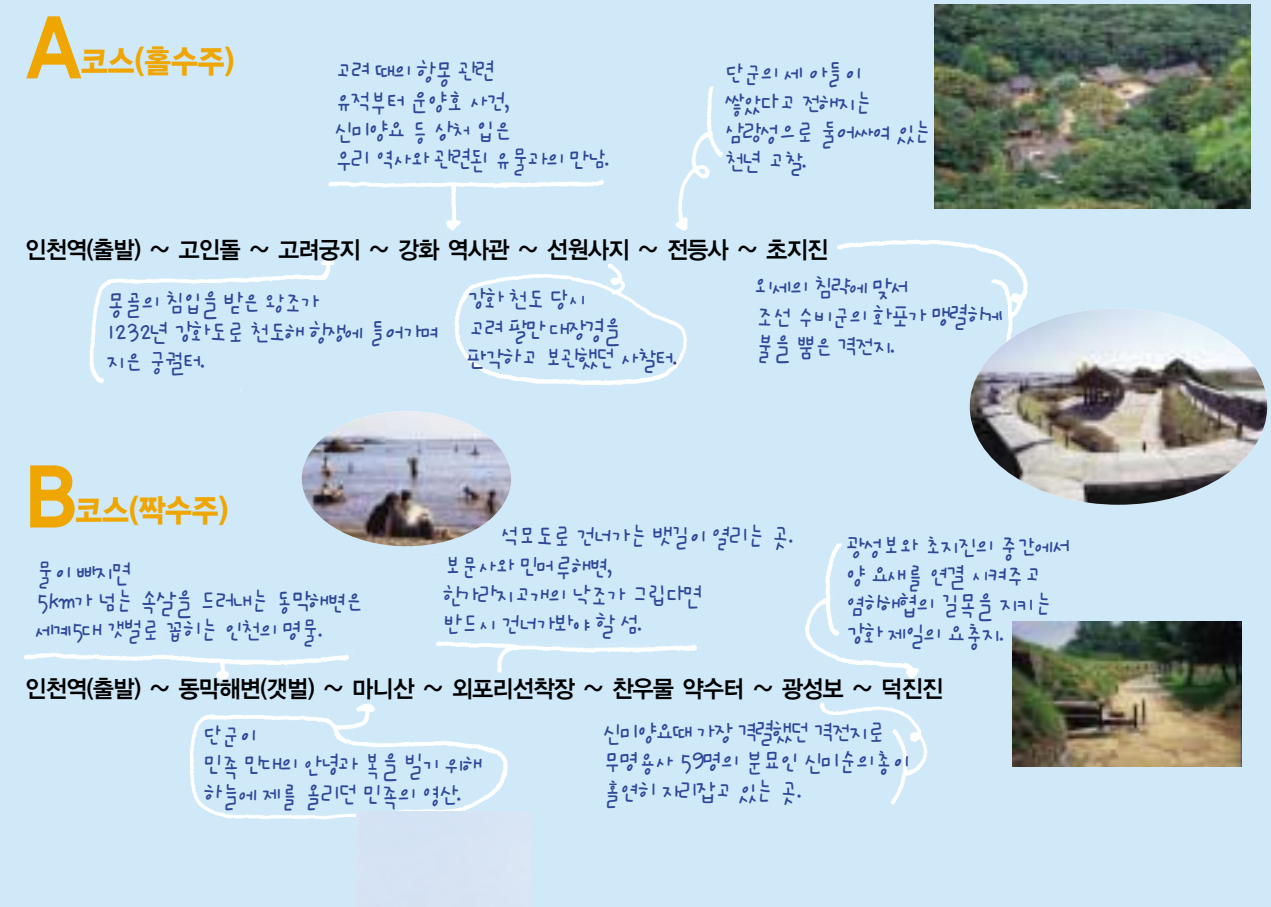


**공항노선** (90km, 3시간 소요, 배차간격 1시간30분 하절기(4~10월) 08:15~18:45, 동절기(11~3월) 09:45~1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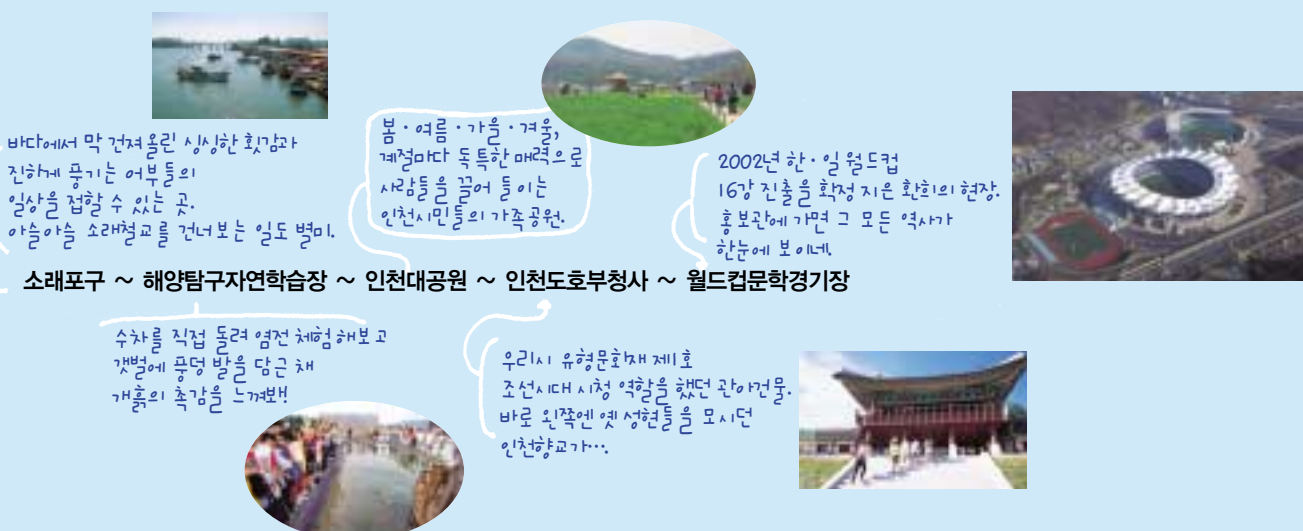
**인천역(출발) ~ 월미도 ~ 과학상설전시관 ~ 해수탕 ~ 공항3층(13게이트) ~ 거잠포입구(무의도) ~ 마시란 해변 ~ 선녀바위 ~ 왕산해수욕장 ~ 삼목선착장 입구 ~ 영종대교(북인천C) ~ 동인천역 ~ 인천역**  
(10면 기사 참조)

**테마관광 I 코스(역사체험)** (하절기(4~10월 중) 매주 토요일 운행 10:30~18:00(7시간 소요))



**테마관광 II 코스(소래포구)** 하절기(4~10월 중) 매주 일요일 운행 10:30~18:00(7시간 소요)

**인천역(출발) ~ 인천항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아암도(해상공원) ~ 송도신도시(홍보관) ~**



시티버스 이용요금(청소년 50%할인) \_ 시내코스 : 1,000원(1회권) 공항 : 5,000원(전일권) / 테마 : 강화 10,000원 소래 : 4,000원 (예약 필수)  
문의 \_ 시 관광진흥과(440-0095) 노선문의 \_ (주) 청송관광 ☎ 469-6060



# ‘벌레를 황금보듯’ 하는 신기한 나라

강화 읍내를 지나 진고개 부근에서 마실 가는 할아버지께 길을 여쭙다. “할아버지, 혹시 벅스투유 아세요?” “버스… 뭐라고?” “곤충박물관 같은데요” “아, 벌레 키우는 거기. 조금 더 내려가서 왼편 언덕으로 올라가면 보일게요.”

벅스투유 건물 앞에는 ‘신기한 곤충들의 나라 Bugs2u’ 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있다. 할아버지 눈에는 곤충들이 신기한게 아니라 아마 곤충을 키우는 사람이 신기하게 비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벌레들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게 보였을 지도 모른다.

곤충농원 벅스투유에는 두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20cm가 넘는 말레이시아 대왕여치, 빛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헬레나물포나비, 세계최대 크기의 브라질 타이탄하늘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채집한 나비, 꽃무지 등 2만여점의 곤충 표본이 전시돼 있다. 채집곤충 수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다.

이곳을 운영하는 박제원(39)씨는 원래 팽이버섯을 키우던 농사꾼이었다. 중앙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곤충진화유전학을 전공한 그는 부친의 권유로 94년부터 팽이버섯농장을 운영했다. 95년도에는 새농민상을 수상할 만큼 농사일에 폭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98년 무렵부터 운명처럼 곤충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농장 일 틈틈이 박씨는 표충망 하나를 둘러메고 전국 각지로 곤충을 찾아다녔다. 먼지 쌓인 전공서

적을 다시 펴보고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곤충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곤충채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이때부터 다시 벌레를 공부하는 ‘공부벌레’가 되었다.

99년 마침내 잘 나가던 버섯농장의 문패를 떼어내고 곤충농장 간판을 달았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애완용으로 사육해서 팔고, 그 돈으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등지의 루트를 찾아 해외 곤충 표본을 사들였다. 그렇지만 현재 벅스투유에 전시된 표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곤충들은 그가 직접 채집한 것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는 밤을 지새며 실오라기 굵기의 꽃무지 다리 하나라도 부러질세라 사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핀을 쫓는 섬세한 작업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버섯농장을 개량한 150평의 곤충농장은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지만 6개의 표본 전시실과 곤충 사육실이 있다. 외형과 달리 이곳에는 파푸아뉴기니의 ‘파라다이스 버드wing 왕나비’, 흰 몸통이에 긴 더듬이를 가진 ‘딱가니 흰왕참나무 하늘소’, 아프리카에만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꽃무지 ‘골리앗 꽃무지’ 등 귀하신 몸들이 전시돼 있다. 이것들 앞에서는 ‘벌레보듯 한다’라는 말은 삼가해야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비싼 표본에 속한다.

‘touch & feel’ 박씨는 방문객들에게 단지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게도 한다. 마침 인근 유치원에서 단체관람을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곤충을 기르는 사육실에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또한 직접 그것들을 만져볼 수 있게 했다. 아이들은 곤충을 들이대면 처음엔 말그대로 ‘벌레 씹은’ 얼굴을 하며 움츠러 들지만 금방 곤충들과 친해진다.

요즘 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연필과 공책만 팔지 않는다. 곤충도 판다. 성장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재미 덕에 애완곤충을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벅스투유는 곤충을 전시하는 것 뿐만아니라 장수풍뎅이 성충, 넓적사슴벌레 유충 등을 분양 판매하고 있으며 사육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사육중의 문제점이나 궁금증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이트(www.bugs2u.com)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벅스투유(Bugs2u)는 농장이름에 걸맞게 Bugs to You (그대들에게 곤충을…)를 실천하고 있는 ‘신기한 곤충들의 나라’이다.

글 \_ 유동현 · 사진 \_ 김성환



1 만져봐, 그리고 느껴봐 2 우와~ 곤충이 엄청 많아요 3 나도 커서 파브르 같은 곤충학자 될래요 4 ‘제 친구랍니다.’ 농원 앞에서 포즈를 취한 박제원 씨 5 금방 날아 오를 듯한 나비 표본들

**찾아가는 길** \_ 강화 읍내를 지나 강화산성 서문에서 1km 정도 가면 진고개가 나온다. 이 고개를 넘자마자 왼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여기서 좌회전해 언덕길을 들어서면 마을화관 뒤편에 가건물로 지어진 강화곤충농원이 나온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강화종합터미널에서 하점 방향 버스를 갈아타고 진고개 넘어서 하차한다. 버스 진행방향 반대편 좌측 산자락을 보면 건물이 보인다.

**이용안내** \_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한다. 단체관람을 원할 경우에는 미리 연락(032-934-9405) 해야 한다. 관람료는 1인당 1,000원.



올 드 보 이 들 눈 물 샘 열 린 다

## 악극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과 이별, 눈물과 아픔의 인생 여정을 다룬 신파조의 악극 <미워도 다시 한번>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올드팬의 향수를 자극할 <미워도 다시 한번>은 1968년에 영화로 제작돼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으며 지금까지 여덟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한국 멜로영화의 대표작이다.

순박한 섬 처녀 수정이 섬마을 선생님 태현에게 순정을 바쳤으나 버림받은 뒤 불치의 병을 얻자 아들 철이를 태현에게 맡기고 비극적으로 죽어간다는 최루성 이야기. 텔레비전 인기 드라마 <대장금>에서 한상궁 역을 맡았던 양미경이 타이틀을 수정 역을 맡았다. 이밖에 여운계를 비롯해 최정훈, 선우용녀, 이승철, 이인철 등 낮익은 얼굴들을 함께 볼 수 있다.

일시 \_ 3월 6일 오후 4시, 7시 / 7일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 5만원, 2층 4만원

예매처 \_ 신세계 사운드웨이브, 미추홀부페, 부평문고, 대한서림, 만수종합문고, 주안시민문고

인터넷예매처 \_ 티켓링크, 티켓파크, 엔티켓

문의 \_ 공연기획 미래공연 (818 - 5665)



2 0 0 4 김 범 수 Live Concert

## 환상지애 (幻像之愛)

봄날, 마법 같은 음악의 유혹이 시작된다. 한편의 뮤지컬처럼 마법과 음악이 조화된 신개념 콘서트인 Magical Concert, 2004 김범수 라이브 콘서트 '환상지애 (幻像之愛)'가 인천에서 펼쳐진다.

테마에 따라 바뀌는 무대와 조명의 색다른 공연 분위기 속에 '약속' '보고싶다' 등 마법 같은 사랑이야기를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김범수의 애절한 목소리로 듣는다. 또한 데뷔 전 각종 미공개 영상과 미국에서의 활동모습, 그리고 그의 영상일기가 이번 콘서트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일시 \_ 3월 28일(일)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R석) 50,000원 2층(A석) 40,000원

인터넷예매처 \_ 티켓링크, 티켓파크

문의 \_ 창라이프 (433-6070)



### 사람인형 뮤지컬 <개구리왕자>



물질만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강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어린이들에게 약속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시켜주는 작품이다. 각종 인형과 탈 그리고 그림자 인형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연기하는 사람인형 뮤지컬로, 친근한 동화속으로 들

어가는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다.

해님도 반할 정도로 예쁜 공주가 어느 날 황금 공을 가지고 놀다가 샘물 속에 빠뜨리게 된다. 그때 개구리가 황금공을 찾아 줄테니 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는데 공주는 빨리 황금 공을 찾을 욕심으로 개구리와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일시 \_ 4월 2일(금) 오전10시20분, 11시 30분, 오후3시

4월 3일(토) 오전10시40분, 오후2시30분, 오후4시

장소 \_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551-6602)

티켓 \_ 일반 10,000원 할인 5,000원

문의 \_ 극단 꼬마세상 016-2500-560, 016-774-0014

### <봄맞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

인천음악문화원이 가곡과 아리아로 새봄을 연다. 제36회 정기 연주회를 <봄맞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이란 타이틀로 '보리밭' '그대있음에' 등 귀에 익은 우리가곡과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Cheglida manina 등 아리아를 들려준다.

일시 \_ 3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초대(무료)

문의 \_ 429-0248

### 창작 어린이 뮤지컬 <효자 달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자이야기 '달봉이'가 극단 야호에 의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진다. 달봉이는 동네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즐거워하는 그런 바보이다. 달봉이는 힘이 장사다. 그렇지만 그런 힘을 한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착한 장사이다. 달봉이는 효자다. 그의 하루는 늙고 병든 어머니의 밥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다. 어머니가 한끼 굶는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효자이다. 그래서 달봉이는...

일시 \_ 3월 16일~28일 평일 오후 2시, 4시(단체 11시) 주말·공휴일 12:00 오후 2시, 4시

장소 \_ 김스아트홀(김스클럽 구월점 10층)

티켓 \_ 7,000원(할인 5,000원) /단체 3,000원

문의 \_ 434-7008



### 어린이 뮤지컬 <CATS>

세계적인 거장 앤드류 웨버와 카메론 매킨토시의 뮤지컬 '캣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재창작한 작품이다. 지혜로운 늙은 고양이부터 희고 어여쁜 고양이, 겁쟁이 고양이, 방랑고양이, 똥보 고양이, 말쑥꾸러기 고양이까지... 완벽하게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의 역동적인 안무와 고급스러운 음악이 감동과 재미를 더해 준다. 꿈을 이루기 위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고양이들의 모습들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소중함을 감동적으로 전해 줄 것이다.

일시 \_ 3월 20일 ~ 21일 오후1시, 3시,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5,000원

문의 \_ 극단 한울 031-932-0634



## 제 3회 서미회전

서미회(西美會)는 지난 2001년 인천 시민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립된 순수 아마추어 미술 모임이다. 주로 30, 40대 주부로 구성된 서미회는 사회인으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붓을 잡고 기량을 연마한 결과,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만큼 출중한 실력을 지니고 있다. 회원 개개인의 창의적 표현은 전업 작가에 못지 않은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지역의 문화적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탈피시키고 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라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 있는 서미회는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천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각종 공모전과 그룹전 그리고 야외스케치 등으로 1년 내내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년에 한번씩 회원전을 연다. 이번 서미회전은 세 번째 전시회로 구상과 비구상 30여 점이 전시된다.

일시 \_ 4월 2일~8일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문의 \_ 019-221-1487



김현호작



조순이작



중국 국가장예인예술단 공연 <MY DREAM>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 하며 그리고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보여주는 공연은 또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공연의 한 순간 순간은 바로 인간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참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주는 감동의 한마당이다.



중국국가장예인예술단은 이미 중국 본토는 물론 동남아 각국과 미국에서의 공연을 통해 그 깊고 놀라운 예술성과 문화적 창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과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관객들의 가슴을 울려주고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을 깨우치게 한다. 이 공연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하고 너와 내가 아닌 모두 함께 살아가는 다정한 지구촌을 다짐하는 인간애의 비단결을 수놓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_ 3월 10일, 11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 A석 10,000원

문의 \_ 에이엠기획(주) 02-586-8280

전 시 회

신춘기획 봄 풍경전

3월2일~14일 신세계 갤러리

스페이스 빔 기획공모 선정전시\_1

검은 개(우주, 임희영)

3월5일~3월18일

제6회 난 연합전

3월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1회 이관수 일러스트 개인전

3월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김상호 개인전

3월12일~1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서양화동호인 미개

3월12일~1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신춘기획 들꽃전

3월16일~28일 신세계 갤러리

제3회 퀼트사랑 회원전

3월19일~2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미추홀 한글 서예협회전

3월26일~4월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아소회 창립전

3월26일~4월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천시민대학 한국화부 회원 전시회

3월26일~4월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시민대학 서미회전

4월2일~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정은숙 개인전

4월2일~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11회 박치성 개인전

4월2일~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이 담긴 책



문화로 바라보는 인천

지역사랑, 문화사랑, 인간사랑을 모토로 지역문화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해반문화사랑회가 지난 8년 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지역의 문화적 현안 및 과제에 대하여 토론해 온 ‘해반문화포럼’의 발제문을 모아서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문화로 바라보는 인천」은 한 지역에서 문화만을 갖

고 고민해온 시민들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인천문화의 자화상을 한 눈에 훑어 볼 수 있는 자료집이다.

총 486쪽 분량으로 꾸며진 이 책의 내용은 그동안 45차례 열린 포럼의 개최 순서와 관계없이 주제별 (제1장 ‘인천, 그 삶의 흔적’ 제2장 ‘인천의 문화적 기반’ 제3장 ‘바람직한 인천의 미래를 위하여’ 제4장 ‘문화와 축제’)로 묶어 독자들이 찾아 읽기 편하도록 했다.

또한 책의 발제문들은 강정인(서강대 교수), 이 반(숭실대교수), 강준혁(메타기획 대표), 정갑영(한국문화정책개발원연구원), 이종호(무용평론가)등의 외부 전문가와 최원식, 김민배, 윤여원 등 인천 내부 전문가들의 주옥같은 발제문들이 다양하게 실렸다.

해반문화사랑회는 그 동안 「열려있는 땅 인천」, 「인천석급」 영인본과 윤문본, 「개항과 양관역정」 영인본과 윤문본 등 인천연구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다.

문의 \_ (사)해반문화사랑회 www.haeban.org / 전화 761-0555

무 료 영 화

청소년회관 (오후2시)

3월7일 헬크

3월14일 메달리온

3월21일 캐리비안의 해적

3월28일 영어완전정복

문의 \_ 887-5270

청소년수련관 (3월 매주 토·일요일)

청소년 영화 <학교에 가자>

문의 \_ 465-6828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오후 2시)

3월6일 하치이야기

3월7일 스피릿

3월13일 마들렌

3월14일 별주부 해로

3월20일 고독한 영혼

3월21일 체포하겠어

3월27일 욕망의 상속자

3월28일 엘도라도

문의 \_ 764-9931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영상실(오후 2시)

3월 7일 첫사랑 사수결기대회



3월14일 포카혼타스2

3월21일 톨레이다2

3월28일 고양이의 보은

문의 \_ 832-0915



일	화	수	목	금	토
<b>3월 7</b> (6일~) KBS9:19 <미워도 다시 한번> 16:00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0,000원 40,000원 818-5665 (1~14일) 가족뮤지컬 <원시인? 사인!> 14:00 16:00킴스아트홀	<b>9</b> <여성노래부르기교실> 11: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440-3263	<b>10</b> <중국국가장예인예술단 초청공연> (~11) 19:00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0,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02-586-8280	<b>11</b> <인천클라리넷합주단 제1회 정기연주회>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424-7117	<b>12</b> <인천예술고등학교 재·회 동문음악회> 19:00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434-7201	<b>13</b> 가족뮤지컬<오조의 마법사> (~14)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2:00 14:00 16:00 / 10,000원 7,000원 6,000 / 02-837-5875 우리상자 콘서트 16:00 20:00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45,000원 35,000 / 02-3862-4433 시립교향악단 청소년문화체험마당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30 / 2,000원 / 420-2781
<b>14</b> 친사의 집 기금마련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5: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5,000원 10,000원 433-2233	<b>16</b> <여성노래부르기교실> 11:00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440-3263 <불망이 기억과 아리아의 밤 (인천음악문화원)> 19:30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0,000원 5,000원 / 429-0248 창작 가족뮤지컬<홍자 탐몽이> (~28) 14:00 16:00 킴스아트홀	<b>17</b> 가족뮤지컬<인어공주> (~18) 11:00 14:00 16: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000원 4,000원 02-2686-3541	<b>18</b>	<b>19</b> 어린이뮤지컬 <쫄토> (~21) 13:00 15:00 17: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5,000원 031-932-0634	<b>20</b>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21) 12:00 14:00 16: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000원 8,000원 031-973-4608
<b>21</b>	<b>23</b> <여성노래부르기교실> 11: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440-3263	<b>24</b> 조진숙 전통춤 <바람소리 한자린>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011-9949-0597	<b>25</b>	<b>26</b> 시립교향악단 제251회 정기연주회 19:3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000원 7,000원 5,000원 438-7772	<b>27</b> 개관 10주년기념 <동물의 사육제> (~28) 14:00 16: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000원 8,000원 02-2236-9296
<b>28</b>	<b>30</b>	<b>31</b> 시립무용단 <춤마당 흥마당>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000원 3,000원 420-2788	<b>1</b> 개관10주년기념 시립극단 연극공연 (~11)		<b>3</b>
<b>4</b> <비바! 라이브콘서트> 16:00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5,000원 35,000원 424-5111	<b>6</b> 	<b>7</b> 개관10주년기념 시립무용단공연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88	<b>8</b>	<b>9</b> 개관10주년기념 <백건우 초청공연> 19:3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16	<b>10</b>

※ 공연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 세계 스포츠 전사들, 인천온다

인천은 여러 가지 닉네임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동북아의 관문도시, 동북아의 경제금융중심도시,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바다의 도시...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국제스포츠의 중심도시' 이다.

이미 인천에서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FC가 3월 1일 창단과 동시에 일본 프로팀 감바오사카팀을 초청해 친선경기를 가졌다. 하지만 이것은 올해 열릴 국제 대회들의 서곡에 불과하다. 올해에만 인천에서 3개의 국제대회가 열릴길 기다리고 있다.

## 국제대회 : X게임대회 부터 축구A매치 까지



꽃피는 4월, 인천은 온통 스틸과 모험의 도가니가 된다. 4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인천문학경기장 X-Game장에서 열릴 예정인 '2004 제1회 인천 World X-챌린저 선수권대회'는 세계 최고의 모험광들이 펼치는 한편의 퍼포먼스가 될 것이다. 인라인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 BMX(모기자전거) 등 3종목에 걸쳐 이 분야의 고수라 자부하는 이들이 자웅을 겨루게 될 이 대회는 '대한민국 대표 모험심'이라 자부하는 국내 선수 100여 명을 비롯해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9개 국에서 80여 명의 외국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루게 된다. 이 대회는 국내 첫 국제 X게임 대회이다.

6월 19일 부터 26일 까지 8일 동안 인천시립테니스장에서는 '인천 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가 열린다. 총 상금 규모 2만5천 달러가

걸린 이 대회엔 세계 10여개 국에서 124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인 8월에서 10월 경에는 국가대표 축구A매치 경기가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국내대회 : 백구의 향연 부터 씨름왕선발대회 까지



국제 대회 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1월 백구의 향연인 V 투어 인천배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이어 3월엔 미추홀기 전국중고학생사격대회, 인천마라톤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5월엔 시장배 강화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미추홀배유소년클럽축구대회가 열린다. 이어서 시장배 전국초중고교축구대회(7월), 미추홀기전국고교야구대회(8월), 9·15인천상륙작전기념 21회 남녀 궁도대회(9월), 인천광역시씨름왕선발대회(9월), 9·15인천상륙작전기념제23회초중교대항역전경주대회(10월), 시장배전국보디빌딩대회(10월), 대통령배2004전국씨름왕선발대회(11월) 등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 국내 혹은 국외를 가리지 않고 올 인천은 일년 내내 스포츠제전이 열리는 셈이다.

## 국내·외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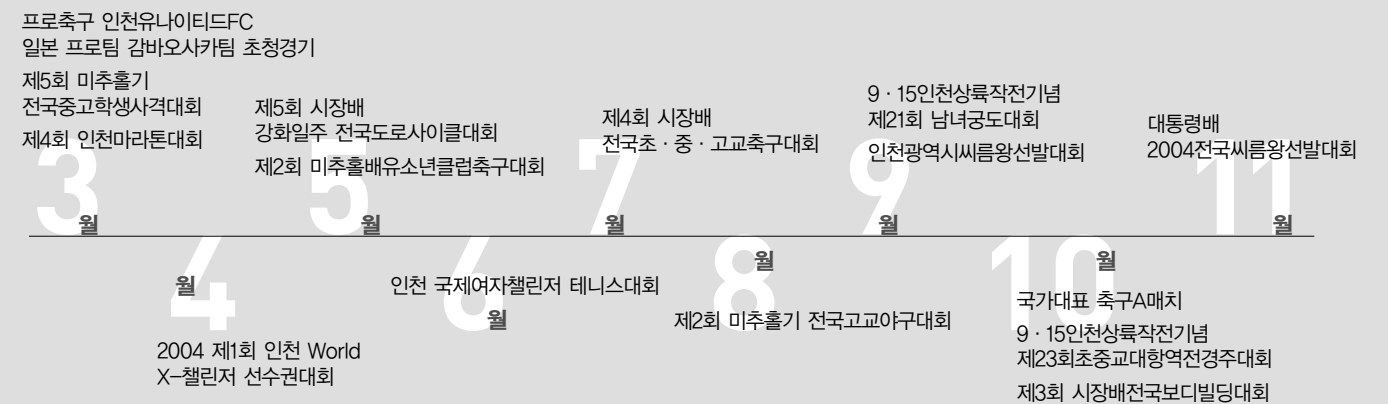


국내·외를 넘나드는 '스포츠의 메카'가 되겠다는 우리시의 발걸음엔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선은 이미 유치에 성공한 '2005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우리시는 이 대회 유치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친 끝에 지난 해 9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경쟁국이었던 레바논(베이루트)과 표결 결과 17vs15로 인천유치 티켓을 따냈다. 2005년 9월~10월 경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을 무대로 펼쳐질 이 대회에는 세계 45개 국에서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참가해 문학경기장을 뜨겁게 달구게 된다.

이밖에도 2008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격년제로 열리는 이 대회는 120개국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 최종 개최여부는 오는 10월에 결정된다. 제16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도 여념이 없다. 2010년 9~10월경 열리게 되는 이 대회는 43개국 회원국에서 18,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37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펼쳐진다. 우리시는 지난 1월 26일 2010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유치위원장으로 신용석씨를 위촉해 본격적인 유치작업에 뛰어들었다.

굵직굵직한 스포츠대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로 '스포츠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는 인천의 행보에는 당분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듯 하다.

## 올 해 열릴 국내외 스포츠 대회





# 오늘은 교육생, 내일은 ‘짜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알선 등을 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서구 석남동에 사는 김명자(38) 씨는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벌써 8개월 째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있다. 다니던 회사에서 손을 다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동사무소의 소개로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알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덕분에 6개월 교육을 무료로 받고 두 과정 째 제과제빵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료와 재료비 등이 모두 무료인 것은 물론 적지만 훈련수당도 받으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지난해 12월에는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땀고 올해는 새로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딸 계획이다. 두 가지 자격증을 갖추게 되면 2년 정도 이곳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서 응용수업까지 마친 후 창업을 할 계획이다.

## 여성인력개발센터, 뭐하는 곳이지?

우리시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모두 세 곳. 가장 먼저 문을 연 인천센터(관장 남상인·남동구 구월동)를 비롯해 남구센터(관장 우옥란·남구 송의동), 서구센터(관장 백인화·서구 가정동) 등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알선 등을 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이 그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부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물론 재료비나 교재비가 무료이고 훈련수당까지 지급 받게 돼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교육이 많다.



우리시의 3개 센터에서는 모두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OA전문가, 한식양식조리기능사(이상 인천센터), 폐백, 컴퓨터, 양재, 베이비시터, 한과병과, 미용, 한식조리사, 의류수선원(이상 남구센터), 반찬창업(서구센터) 등이 그것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여성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센터와 남구센터의 실업자재취직훈련으로 진행되는 제과제빵기능사과정 등은 남성이라도 자격만 갖추면 여성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며 교육받을 수 있다.

과 목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	제과제빵사, 한식조리사, 소규모꽃집창업, 한식조리사, 폐백이바지, 분식창업, 양식조리사, 홈패션, 머리미용	한식조리기능사, 패션양재, 학교급식조리사, 옷수선창업, 폐백이바지, 패션양재, 애견옷제작, 제빵자격증, 밀반찬창업, 홈패션, 워드자격증	제과제빵기능사, 생활홈패션, 생활옷수선, 한식조리기능사, 미용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미용연구반
단순직종	산모돕는이, 가사돕는이, 환자돕는이, 베이비시터	과일아채꾸미기, 베이비시터, 정보화기초, 산모도우미, 떡연구반, 생활요리, 모듬안주 만들기, 양식조리, 중식조리, 워드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엑셀·파워포인트활용	간병인, 전통혼례음식조리사, 봉제보조원
실업자재취직	제과제빵	제과제빵	
여성가장무료훈련	한식양식조리기능사, OA전문가	폐백, 컴퓨터, 양재, 베이비시터, 한과병과, 미용, 한식조리사, 의류수선원	반찬창업
무료특강	비즈공예, 삼색약식, 퓨전떡, 주산식숙셈맛보기, 꽃장식 소품만들기	다함께 차차차, 영화마을	홈베이커리, 손뜨개, 재봉틀&소품만들기, 재봉틀&단줄이기
직업적응훈련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정보화기초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창업전문과정	분식집, 소규모꽃집, 맛깔나는 밀반찬, 의류수선		

인 천 여 성 인 력 개 발 센 터 (<http://www.ywcaici.com/> 428-6696)



지난 94년 인천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연륜에 맞게 앞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 무료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식집, 소규모 꽃집, 출장요리사, 의류수선, 폐백·이바지, 맛깔 나는 밀반찬, 출장요리사 등의 교육을 받은 후 집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창업할 수 있는 강좌들을 개발해 교육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컨벤션전시실무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고급 주부인력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발맞춰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여성부 지원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4명이 교육을 시작해 21명이 수료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아직까지 컨벤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많은 사람이 취업하지는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인천대학교 산하 인천시민대학에서 벤치마킹해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올해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가족 중심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학이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학 특강을 펼치고 부부가 함께 하는 제과제빵, 케이크 만들기, 칵테일 만들기 등이다. 이와 함께 수강생 전원에게 열린 강좌도 펼치고 있다. 여성의 역할과 여성으로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강좌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특강으로 퓨전떡, 주산식 숙셈 맛보기, 꽃장식 소품 만들기 등 공개 강좌를 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여성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맡이'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



## 남 구 여 성 인 력 개 발 센 터 (http://www.namgucenter.or.kr/ 881-6060~2)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애견옷 창업인큐베이터실에서 만난 지영숙(43세 · 남구 용현5동)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남구센터에서 애견옷제작 3개월 교육을 받고 7월부터는 4명이 함께 창업인큐베이터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애견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애견용품점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다. 지 씨를 비롯한 '아줌마' 4명의 월평균 매출액은 5백~6백 원 정도.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각자 1백만 원 정도는 집에 가져갈 수 있어 가게에 큰 보탬이 된다. 보통 9시에 출근해서 5~6시 정도에 퇴근하기 때문에 시간 활용도 잘 되는 편이다.

이처럼 남구센터의 특화 프로그램은 애견옷 제작. 2년 전 애견산업이 활성화 되었을 때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서는 처음으로 애견옷 제작 프로그램을 열었다. 각종 샘플과 외국잡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 뒤 제작에 들어갔는데 호응이 좋아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매 기수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는 애견옷 창업인큐베

이터실에서 창업을 하곤 한다.

또한 남구센터는 직업적응훈련을 비롯해 국비훈련으로 실업자, 여성가장, 자활직업, 고용촉진, 단기적응, 전업주부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직업능력개발, 단순직종, 사회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남구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지난해 1천271명이 참가해 1천177명이 수료하고 689명이 취업할 정도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

요즈음은 경기침체로 수강생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곧바로 취업을 하거나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강좌를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 무료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을 운영했고 토요일강으로 과일 깎기 등을 재료비만 받고 강의해 지역사회에 요구에도 부응하고 있다.

## 서 구 여 성 인 력 개 발 센 터 (http://www.sgwomen.or.kr/ 577-6091 )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으면 먼저 디지털퍼머 13,000원, 키스센스퍼머 13,000, 일반 퍼머 10,000원 등의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요즘 웬만한 미용실에서 퍼머 한번 하려면 4~5만원은 기본이고 이름 좀 있다하는 미용실에서는 십 만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 10,000원짜리 퍼머라니,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다. 이 머리방은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미용기능사반에서 운영하는 것. 그렇다고 초보 미용사가 아니라 몇 년씩 기술을 익혀온 이들과 강사 선생님이 직접 해 주시는 것이라 믿고 맡기면 세련된 멋쟁이로 변신할 수 있다.

미용기능사반에서는 매주 화요일이면 서구에 있는 13개의 경로당을 차례로 돌며 미용봉사를 한다. 무료로 머리를 만지게 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물론 실습으로도 그 만이다.

99년 문을 연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의류수선 및 흠패선, 미용 등에 주력하고 있다.

서구 지역의 특성상 30~40대의 전업주부가 많고 원가 시작해 보려는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3월에는 전산 · 세무회계 강좌를 개설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지 못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의류수선과 흠패선반도 인기다. 이곳을 거쳐 이민을 간 이들이 외국에서 의류수선을 해 본 결과, 세탁을 같이 배우면 창업하는데 훨씬 이로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올해부터는 이민취업을 위한 '의류리폼+세탁'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수의를 제작해 판매하는 소품몰을 운영할 계획도 세웠다. 이곳에서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질의 베를 확보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의를 제작해 판매하고 가난한 어르신들께는 무료로 수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회에서 취미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얼마 전에 개강한 비즈공예반은 반을 나눠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성환

## 제 1회 인천시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자원을 버리는 것이다. 결국 돈을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조금만 생각을 해 본다면 쓰레기가 소중한 물건으로 바뀔 수도 있다.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탁자를 만드는 것은 버려질 물건을 이용하여 유용한 생활용품을 제작한 좋은 예이다. 이런 식으로 버려질 물건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환경을 보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인천의제 21 자원순환분과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 1회 인천시 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인천 거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버

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하여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우리 생활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를 잘 실천함으로써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는 경우도 많다. 참신하고 실용적인 재활용품 작품들이 많이 응모될때 인천환경이 지켜질 것이고 나아가서 지구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골목청결 으뜸 동아리 모집

동이 트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내집 앞은 물론이요 마을 어귀까지 청소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라도 솔선수범하여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했던 미풍양속은 우리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부터는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골목 길을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의 골목길을 대부분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다. 여기저기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심한 경우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까지 풍긴다.

인천의제 21는 골목길을 내가 먼저 청소하는 미풍양속을 되살리고자 골목청결 으뜸 동아리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20~30가구 단위로 동아리를 조직해 아침이나 저녁에 골목길을 청소하고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이 동아리에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약간의 활동비도 지급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말에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은 동아리를 조직하고 세부사항은 인천의제 21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예술공연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인천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하여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고 시민들과 보다 밀접하게 호흡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제 21에서는 2003년 모든 문화예술 공연을 모니터링 하였다.

3월 12일 오후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바람직한 인천의 문화예술 공연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좋은 의견을 나눌 때 인천의 문화예술 공연은 시민 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서구의제21 추진위원 모집

인천에서 네 번째로 서구의제 21이 추진되고 있다.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며 미개발지역이 많은 곳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목재단지와 주물공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밀집돼 있다.

서구의제 21은 서구의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교통, 사회복지, 문화, 생태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서구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모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데 서구에 거주하거나 서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위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_ 인천의제 21 (440-1544) 또는 서구청 기획감사실

자료제공 \_ 인천의제 21 (440-1544)



# 굿인cheon 굿뉴스

## 2002 인천시 재정운영, 건전하고 안정적

최근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FY200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의 재정운영 상태는 매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8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해 건전성·효율성 2개 부문과 자주성·안정성·생산성·노력성 4개 영역 그리고 10개 단위지표에 의거해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은 개별지표의 순위발표와 함께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의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우리시는 재정건전성 분석영역의 5개 단위지표에서 7개 특별·광역시중 서울에 이어 우수단체로 평가되었고, 재정자립도(78.05%) 2위, 재정력지수(96.50%) 2위, 경상수지비율(13.00%) 2위, 세입·세출총당비율(92.22%) 4위, 지방채상환비율(5.37%) 1위(2001년도 2위)로 평가됐다. 또 재정효율성 분석영역의 5개 단위 지표에서는 재정계획운영비율(105.55%) 4위(2001년도 3위), 세입예산반영비율(99.97%) 1위(2001년도 2위), 투자비비율(41.75%) 5위(2001년도 6위), 자체수입증감율(119.71%) 2위, 경상경비증감율(113.44%) 5위(2001년도 6위)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단체로 평가됐다.

주요 개별지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재정건정성 분석지표중 지방채상환비율 1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2위, 세입·세출총당비율 4위를 각각 기록해 우수한 재정건정성을 나타냈다. 특히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경상수지비율에 있어서는 부평구·중구·연수구가 전국 자치구 중 건

전성 1,2,3위를 기록했다. 반면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18.29%로 전국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 원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 채무의 재정압박도를 나타내는 지방채상환비율은 5.37%로 7개 특별·광역시중 가장 낮은 부담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2003년 말 시민 1인당 채무액은 특별·광역시 평균인 506,957원에 비해 매우 적은 233,231원으로 나타났다.

문의 \_ 시 예산담당관실 (440-2192)

## 어린이를 위한 시청 견학



우리시는 미래 인천의 주역들에게 시청과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리고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시청 견학'을 실시한다. 견학코스는 시청 중앙홀 → VTR관람(시청 홍보물) → 민원실(여권 등 민원업무 발급) → 시의회(영상홍보실) → 시의회 본회의장 순이다. 견학은 3월 부터 10월 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부터 12시 까지 2시간 동안 실시된다. 견학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나 단체는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작은 기념품도 준다.

문의 \_ 시 총무과(440-2418)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추진

우리시는 인천을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대기질관리, 수질관리, 상·하수도 관리, 해양환경관리, 폐기물관리, 소음·진동 관리, 토양 및 유해물질 관리, 자연환경 관리, 환경관리기반 조성 및 시민참여, 지구환경 및 국제교류협력 등 10개 분야 73개 단위 과제로 나뉘어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목표 년도인 2008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PM10의 경우 7.8% 저감되는 등 시민체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기간 동안 환경기초 시설 확충 등에 약 21,950억원이 투자된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440-3513)

## 제2연육교 조기완공 위한 관계부처 조정회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정보화신도시를 잇는 제2연육교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한 관계부처 조정회의가 지난 2월 4일 오전 9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KODA개발(주)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금년 5월 중 시공사 선정, 7월 말 까지 계약체결 및 8월 착공,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혁신적인 공법 적용, 정부는 각종 행정절차와 처리기간 단축에 최대한 협조'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제2연육교가 조기완공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와 청라매립지, 송도정보화신도시 등이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조성사업

이 활기를 띠 것으로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 (450-7190)

**택시 운행기록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  
우리시는 법인택시 운행기록과 택시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운전경력, 교육이수, 행정처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행기록 분석 및 운전자 경력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이 주관이 되어 2004년 2월 개발업체를 선정하 뒤 6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산프로그램에는 운행차량의 회사명, 차량번호, 부제, 운전자 등의 기초자료를 비롯해서 주행거리, 영업횟수, 연료사용량, 운송수입금 등 운행기록 관리메뉴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일, 면허번호, 양도 양수등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된다. 우리시의 택시 대수는 2003년 12월 말 현재 13,003대로 매년 택시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법인택시 업체의 경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 및 증차 정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440-3913)

##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6.1점 Up'

지난 2003년 시 본청(상수도, 종합건설본부 포함)의 18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건축 및 상수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외한 모든 비교 대상이 2002년 보다 6.1점 향상되어 평균 86.7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순위는 소방, 여성복지, 사회복지 헌장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받아 지난 10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80

## 포토시정

## '닭고기를 먹읍시다'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가 지난 2월 16일 오후 동암역 북광장 농협 동암지점 앞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동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군수·구청장, 농협지역본부장, 영양사회, 사료협회 등이 참석했다. 닭고기 시식회를 마친 뒤 소비촉진을 위한 가두 홍보가 이어졌다.

## 지하철 화재 합동훈련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2월 18일 연수구 신연수역에서 지하철 화재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구조대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열차에서 부상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일 동안 남자 830명, 여자 970명 등 총 1,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한 것을 분석해 나타난 것이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440-2424)

보급률은 지난 연말 93.2%에서 95.8%로 높아진다. 특히 우리시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계양구 동양지구 478세대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주택건축과(440-3812)

## 올 한 해 3만6천여 호 주택 공급

올 한해 동안 우리시에 총 3만6천7백45호의 주택이 건설 보급된다. 공공부문에 공급하는 7천8백68호 가운데 대한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4천6백50호를 보급할 계획이고, 3천2백18호는 공공분양된다. 나머지 2만8천8백77호는 민간부문의 등록업체 7천7백71호, 재건축 7천8백61호, 지역·직장조합 6천7백42호, 재개발 6백44호, 기타 일반전문건설업체에서 5천8백59호를 공급한다. 올 인천시의 주택보급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 '2004년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인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구인업체의 경우 경기·인천 지역 소재 업체이며 구직자의 경우엔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인천시립도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구직희망자의 경우 직접 행사장을 찾아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본 행사 이외에도 증명사진 무료촬영 서비스와 면접용 증명사진 미지참자



Welcome to Incheon

베트남 PIAP(정책수행원조 프로젝트) 대표단 일행 방문



베트남 국회 사회문제 상임위원회 누옌더 호 아이투 위원장 일행이 한국의 입법과정과 여성문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오후 인천시청을 방문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들은 인천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정책과 정책실무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 방문



신임 대한적십자사 이윤구 총재가 지난 2월 10일 오전 인천시청을 방문, 안상수 인천시장을 예방했다. 이 총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인천프로축구 시민주 청약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창단되는 인천구단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를 위한 즉석 증명사진 촬영서비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고용동향분석, 해외취업,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을 안내하는 가상공간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시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서도 같은 기간 동시에 열린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440-3842)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제안코너’ 신설

우리시는 네티즌(시민)으로부터 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제안코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적해준 잘못을 개선해 더 나은 홈페이지로 거듭나기 위해서이다. 제안 내용은 제공되고 있는 자료 중 오타, 오류 등 잘못된 것, 서비스 받고 싶은 내용, 홈페이지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사항 등으로 시 홈페이지

에 접속한 뒤 열린시청-열린참여공간-시민의견수렴코너에 의견을 올리면 된다. 매 분기마다 제안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440-2392)

그린벨트 60만평 체육공원 조성

우리시는 인천지역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계양구 서운동을 비롯해 서구 연희동, 연수구 선학동 등 3곳 60만평 가량에 골프장과 시민의 숲을 비롯해 운동시설을 갖춘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계양구 서운동 그린벨트 20여만 평에는 골프장과 시민의 숲, 시민소방 안전체험장 등 각종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구 연희동 20여만 평에도 시민 휴식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연수구 선학동 15만여 평은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춘 시민

의 숲으로 꾸미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사업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린벨트 대상사업 활용방안을 세우고 그린벨트내 체육공원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도시계획 내에 포함하기 위해 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승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지역 그린벨트 해제 총 규모는 8.51㎢로 우선 해제 집단취락 44곳 51만평, 조정가능지 17곳 206만평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강화하점공단 폐수배출업소 강력 단속

우리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 까지 이틀 동안 강화 하점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서 방류되는 폐수로 인해 발생하는 연안오염 및 민원예방을 위해 이 일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하점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돼 군의 경계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하수관로를 24시간 감시하던 중 2월 21일 오전 5시 경 군부대 초소 앞에서 검붉은 폐수를 확인하고 하점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폐수배출여부를 추적한 결과 A업소를 적발했다. 이 업소는 폐수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처리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업소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했다. 또한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화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취약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수질보전과(440-3092)

인천 수출 100억불 달성 계획 수립

우리시는 ‘인천 수출 100억불 달성 계획’을 세우고 유관기관 및 수출업체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03년 11월 까지 인천의 수출은 전년 대비 46.2% 증가한 74억불을 기록했지만 2004년 수출 전망치는 100억불 수출목표에 다소 미달하는 94.7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수출 100억불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와 수출인프라 확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지원 5개 사업에 8억원을, 카탈로그 제작, 수출기업화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등 수출 인프라 확충 6개 사업에 1억8천만 원을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사이버무역지원 및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국제통상투자과(440-2863)

김동기 행정부시장 취임



김동기 신임 인천시 행정부시장 취임식이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

청원 출신의 김 부시장은 청주고와 고려대를 나온 뒤 서울대 대학원과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각각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행정학 전공자로는 드물게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석사)을 공부하기도 했다.

김 부시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 충북 보은군수, 대통령비서실 민정행정관, 충북 청주시부시장,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국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대표도시가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완성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커스 | 수학여행단 유치 위한 팸투어

인천 투어는 ‘살아있는 수학여행’



사진제공 · 기호일보사

나이를 먹도록 두고 두고 남는 추억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학여행.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지역에서 엿비슷한 일정으로 보낸 기억을 공유하고 있गे 마련이다. 그만큼 수학여행지의 폭이 좁았던 것이 우리네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은 아버지

가 다녀왔고 누이들이 갔던 뻘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대한 추억을 갖게 될런지도 모른다. 기억에 남을 만한 새로운 수학여행지로 추가될 곳은 바로 ‘인천’이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교직원을 인천으로 초대하는 팸투어 행사를 가졌다. 지난 2월 22일 부터 24일 까지 2박 3일 동안 1차 팸투어를 진행한데 이어 3월에서 4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2차 팸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2월 22일 오후 3시. 겨울 가뭄을 속 시원히 해소시켜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인천시청 광장에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등 수학여행 담당자 100여 명이 모였다. 이에 앞서 시청 상설간담회장에서 박동석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대전, 대구, 부산, 광주시를 비롯해 강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전국 50여 개 학교에서 인천까지 올라온 교사들을 환영하는 ‘2004 전국교원 인천수학여행 프로그램 팸투어’ 환영식을 갖기도 했다.

이들의 투어코스는 인천 구도심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지역 등. 송도신도시 홍보관을 첫 코스로 첫날에만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차이나타운 등지를 둘러보았다. 23일과 24일에는 월미도에서 시작해 영종도 과학상설전시관, 인천국제공항, 강화도 광성보, 전등사, 동막 갯벌체험장, 해양탐구수련원을 차례로 둘러본 다음 대한민국 최고로 불리는 장화리 낙조를 감상한 뒤 고인돌과 고려궁지 등을 두루두루 둘러보았다.

특히 24일 오전 11시엔 강화역사관에서 성화채화 및 제천의식을 시연하는 정성도 기울였다. 전국의 학생들이 인천으로 여행을 오게 될 경우 단순히 추억만들기 여행이 아닌 역사와 문화,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수학여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린 것이다.

이번 팸투어는 우리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관광협회가 주관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호일보, 인천에듀투어공사가 후원해 가진 행사. 우리시는 이번 팸투어에 참여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인천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3310)



# 새 투자처, 인천으로 Come On!



중국·싱가폴 지역에서의 투자유치·홍보 활동을 끝내고 지난 2월 24일 새벽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돌아온 인천시 대표단의 얼굴은 밝았다. 다소 뻘뻘했던 7박 9일 동안의 일정으로 피곤한 기색이 엿보일 법도 하련만 두둑한 성과에 대한 기쁨으로 피곤함도 덮혀버린 듯 했다.

안상수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대표단에는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해 유영수 송도 테크노파크 원장, 정명식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남정복 기업은행 구월지점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계, 금융계 대표들도 대거 참여했다. 물류-제조 프로젝트 공동투자 등 우리 인천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였다. 2월 16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정의 첫 방문지는 산둥성. 이곳에서 두 도시는 서로 '인천-산둥성간 우호협정 체결'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고 받았다. 그 안에는 산둥성 내 한국 기업 위한 공단조성, 양지역 기업의 상대지역에 대한 상호 투자 장려, 공무원 상호파견, 쌍방간 연락사무소 개설, 친선을 위한 상호방문, 민간교류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첫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표단의 다음 목적지는 중국의 경제중심도시 상하이. 19일 오전 푸둥신구위원회를 방문한 대표단은 경제특구의 개발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상하이 시 정부를 방문, 양승 부시장을 만나 양도시의 우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등 달라진 인천의 투자환경을 강조하며 '화교자본이 인천에 투자해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이밖에도 오후엔 코트라 중국사업본부에서 상하이 주재 한국언론사 특파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동북아시아 인천-상하이의 상생 방안에 관한 제언'과 '중화권을 향한 인천 세일즈 계획'을 발표했다.

20일 오후엔 홍콩 하버뷰 르네상스 호텔에서 조용하 국제관계자문대사, 강근택 홍콩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홍콩주재 다국적기업 CEO, CFO 및 IT·BT 관련 선도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004 인천 홍콩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미국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Commerz Bank(226위), ConAgra International(175위), China Construction Bank(411위), Volvo(368위) 등을 비롯해 50여 개의 다국적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인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동북아중심도시로서 인천이 가진 강점을 제시하며 특히 '우수한 지리적 잇점과 2,400만 수도권인 거대한 배후 소비시장, 공항과 항만 및 고속도로의 네트워크 연결에 의한 시너지

효과, 세계 다국적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국 투자 중심의 Risk Management 차원에서의 인천이 갖는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크게 부각시켰다. 설명회 뒤 참석자들은 세제 혜택, 외국인 정주환경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대표단은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 산업공단(JTC), 항만공사(PSA)를 차례로 시찰하며 산업현황과 항만, 물류 현황을 파악해 자본유치를 위한 현장 체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차세대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비쿼터스(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현황을 살펴 송도신도시 건설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준 이번 방문으로 우리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훨씬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의 \_ 시 국제통상투자과(440-3055) 경제자유구역청 투자홍보과(740-2749)

## 의 정 소 식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회도서관 자료 열람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40여 만건의 귀중한 디지털 자료를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천광역시의회 내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경철)에서 지난 1월 28일 체결한 국회도서관과의 학술 및 입법정보 교류협력 협정에 따른 전산망 설치를 완료함에 따른 것이다. 국회도서관과의 교류협정 체결은 양 기관간의 정보협력망 구축으로 각 기관과의 디지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입법관련 정보 수집 및 정보역량을 강화해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보 수집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국회도서관 소장자료를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기로 하여 시민들 누구나 시의회 자료실이나 중앙홀 내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게 되었다.

### 제120회 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경철)는 지난 1월 27일 부터 2월 3일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2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 동안 2004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7명의 위원으로 구도심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진우 의원이, 간사에는 이근학 의원, 노경수 의원이 선출되었다. 주요처리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 하였고, 임대국당으로인한주민피해의구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열린 토론을 벌이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2월 3일 폐회하였다.

### 2004년도 모의의회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의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4년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올 모의의회는 영흥중학교 등 6개교가 참여하여 6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데 학생들이 교육과 학습에 관련되는 가상안건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아울러 각각 의장, 의원, 시장, 교육감 등 시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을 맡아 시의회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 모의의회는 지난 1999년부터 미래의 주인공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까지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여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대책 관련 회의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은)는 지난 2월 10일 의회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의원 전체와 시 관련부처 국장, 일반·전문·주택건설협회 사무처장 및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한건설협회 황창기 사무처장은 영종·청라지구, 논현지구, 공항2단계 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주택건설협회 이석규 사무처장은 제도적으로 택지공급을 인천지역업체에 우선 배정(공급)할 것을, 전문건설협회 김성욱 사무처장은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공항공사 등 관련업체의 참여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은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_ 시의회 공보팀



# 낮은 데로 임한 ‘때밀이 목사님’

방승배(55) 씨를 만나기로 한 남동구 무료노인복지시설 초도원. 입구에서 ‘목욕봉사 하시는 목사님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니 ‘벌써 오셔서 2층 목욕탕에서 하고 계신다’는 대답이 쉽게 되 돌아온다. 2층으로 올라가니 비닐앞치마를 한 중년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휠체어를 밀며 목욕탕으로 향하고 있다. ‘방승배 목사님 이세요?’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끄덕이며 ‘좀 있다 보자’고 바쁘게 움직인다. 그리고는 쉼 없이 불 편한 할아버지를 목욕대에 눕히고 거센 물줄기를 뿌려대며 목욕을 시작한다.

방씨가 목욕봉사를 시작한 것은 7년 전 인천으로 올라오면서부터이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21년 동안 경기도, 전라도 등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바다 끝 섬 홍도에서 목회생활을 하다가 처가가 있는 인천으로 올라오면서 기왕이면 남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해보자는 뜻에서 목욕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목회와 목욕봉사를 병행하다가 ‘너는 말로 설교하지 말고 삶으로 설교하라’는 신의 계시에 5년 전부터는 목회활동을 접고 목욕 봉사하는 일만 하고 있다.

방승배 씨의 일주일 스케줄은 연예인만큼이나 빡빡하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시간 남을 때 하는 봉사가 아니다. 월요일 소망의 집, 화요일 선학복지관, 수요일 인천의료원, 목요일 영락원, 금요일 초도원, 토요일 평화의 집... 이런 식이다. 오전에는 이치럼 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가정집을 돌면서 개인 환자들을 목욕시킨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남을 때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외출하기를 원하거나 침술로 자원봉사하는 분, 장애인 이 이동하기 원할 때 차량봉사를 한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기술도 없어서 탈진을 하기도 하면서 그만 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몰아가는 것을 느꼈죠. 지금은 단련이 되고 노 하우도 쌓여 일주일에 40~50명 정도는 너끈히 목욕시키고 있어요.”

목욕봉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웬만한 곳은 걸어다녔고 버스를 타고 다녔단 다. 점심은 늘 자장면으로 때우기가 일쑤였다. 덕분에 자장면에 질려서 지금은 먹지를 않는단다.

가장이라는 사람이 ‘돈’이 되지 않는 봉사만 했으니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느냐는 물음에 “아내에게 가장 고마움을 느껴요. 아내가 남동공단의 전자부품 조립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가끔은 빠있는 소리를 했지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당



신이 반대하면 집을 나가겠다’는 공갈 아닌 공갈협박을 하기도 했어요.”힘들어하던 아내가 3년 전 모 노인 복지시설에 취직을 하고 직접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이해해 주어서 지금은 갈등 없이 목욕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1년 동안 목회생활을 하면서 존경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욕봉사를 하면서 85세 된 어르신께서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은 천사다, 참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어려움도 많고 힘들 때도 많지만 지금은 1남 1녀의 자녀가 모두 장성해 각자 직장 다니고, 후원자들이나 목욕봉사를 받은 분들 여럿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돈으로 겨우 자가용(다마스)을 마련해 목욕봉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봉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목욕봉사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닿는 그 날까지 봉사를 하고 싶단다. 그리고 한가지 꿈이 있다면 봉사단체를 세우는 것이란다. 잠깐 잠깐 시간 날 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숙식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봉사생활로 바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보다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소외 받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희생 없이는 봉사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좀 더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환하게 웃는 그에게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참 성직자의 모습이 비춰지는 듯 하다.

목욕봉사에 뜻을 같이 하시거나 목욕봉사 받기를 원하는 분은 장목자원봉사대 봉사자 방승배(016-636-84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정식

## 숨은 자원봉사자 격려합니다

우리시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기 위해 ‘숨은 자원봉사자 발굴’에 발벗고 나섰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하고 서로 나누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시는 매달 개인과 단체를 1팀씩 선정하기로 했는데 개인 14명과 17개 단체를 추천 받아 심사해 1월과 2월의 숨은 모범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선정했다.

개인분야에서는 76년부터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계층에게 침술봉사를 펼쳐온 김정부 씨와 7년간 목욕봉사를 해 온 방승배 씨가 각각 선정됐다. 단체분야에서는 교통·환경·급식·홀몸노인돌보기 등에 앞장서온 동구 노인봉사대협의회와 (사)함께 걷는 길벗자원봉사단이 선정됐다. (사)함께 걷는 길벗자원봉사대는 10년간 인천지역 홀몸노인과 재가 장애인을 방문해 말벗과 가사돌보기 등을 해 온 단체이다.

문의 \_ 시 청소년자원봉사과(440-3963)





아기 ‘몸짱’을 찾아라

요즘으로 말하면 아기 ‘몸짱’을 뽑는  
우량아 선발대회는 6, 70년대 인기이벤트 중의 하나였다.  
분유회사가 홍보수단의 하나로 주관했던 이 대회는  
제목 그대로 우량한 외모를 선발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포동포동 오른 분유살이  
마치 아기 건강의 척도인양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지금의 건강척도로 보면 예전의 우량아 선발대회는  
비만아 선발대회에 가까웠다고 할수 있다.  
위 사진은 1966년 4월 인천에서 열린  
우량아선발대회에 참가한 아기의 건강을 체크하는 모습이다.  
지금 40줄에 접어들었을 저 아기가  
여전히 ‘몸짱’ 일지 문득 궁금해진다. <鉉>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명동보리밥의 보리밥정식  
윤기 찰찰 콩보리밥

보리밥이 건강밥이라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 그 ‘건강’을 먹고 싶다면 명동보리밥에 가면 된다. 커다란 그릇에 듬뿍 담겨 나온 보리밥은 압력밥솥에 지어서 윤기가 찰찰 흐른다. 그것을 필두로 돼지등뼈를 푹 고아 낸 육수에 100% 국산 콩만 갈아서 넣은 되비지, 재래식 된장으로 6시간 가량 가마솥에 삶아낸 뒤 2박3일 동안 숙성실에서 발효시켜 구수하게 끓여낸 청국장, 그리고 그때마다 계절에 맞게 나오는 푸른 야채들 8~9가지가 보리밥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보리와 찰떡 공합인 열무순을 비롯해 돈나물, 참나물, 취나물, 열무김치, 무생채... 보기만 해도 활력이 솟는 찬들은 계절을 잊게 만든다. 하도 맛갈스러워서 과식을 해도 염려할 필요없다. 자연소화제인 보리누룻밥을 한그릇 떠먹으면 ‘나 소화 다 됐어요’를 외칠 수 있다.

- 보리밥정식 5,000원
- 남동구 구월동 1134-2
- 435-3392
- 250석
-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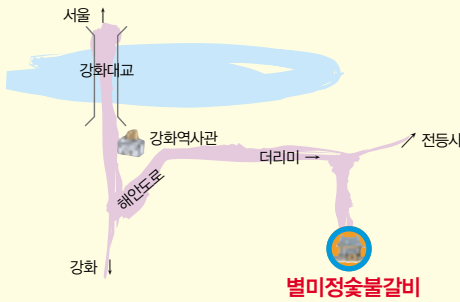


별미정의 장어구이  
‘건강’을 굽는다

‘더리미 장어마을’에서 장어를 구워온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별미정은 장어를 냉동시키지 않고 1kg에 2~3마리 정도 되는 60~70cm짜리 육질이 좋은 장어만을 선택해서 손님이 오면 바로 잡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꿈지는 굽지 않고 생으로 손님상에 올린다. 장어는 일단 주방에서 숯불로 초벌구이 단계를 거치며 기름을 뺀다. 이렇게 해야만 특유의 흙 냄새가 제거되고 느끼하지 않다. 손님이 서투르게 장어를 태워버리거나 설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이 집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만든 양념간장에 푹 담가서 다시 숯불에 구우면 장어는 담백하고 쫄득한 맛으로 변신한다.



- 장어구이 40,000원(1kg)
-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23-2
- 932-1371
- 200석
- 50대



※2003인천시 맛이 있는 집으로 지정된 20곳의 업소를 가나다순으로 실었습니다. 문의\_시 보건위생과(440-2772)







# 르네상스 시대에 온 것 같아요

박윤준(송도중 2) · 장준(연안초 6) 형제는 컴퓨터 주도권으로 가끔 격렬하게 다투기도 하지만

아빠 일을 돕느라 항상 바쁜 엄마를 잘 이해해주는 사이좋은 형제다.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항상 미안하던 엄마 전경자 씨는 아이들과 하루 나들이도 할 겸

문화재 탐방에 참가했다.



1

연안부두 근처에 살면서도 이웃동네인 자유공원도 한 번 못 가봤다는 아이들이 이번에 찾아 볼 곳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고풍스런 건물들이 가득한 중앙동 일대이다. 이번 문화재 탐방에는 문화유산해설사 민명숙 씨가 함께 했다.

먼저 아이들이 찾아간 곳은 문화유산해설사 모임 장소가 마련된 우리시 역사자료관.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방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오늘의 목적지인 옛 은행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 무채색의 빛 바랜 동네

역사자료관에서 가파른 길을 내려와 중구청 앞으로 향하면서 문화유산해설사 민명숙 씨는 아이들에게 먼저 우리나라의 근대시대가 언제부터냐는 질문을 던졌다. 초등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기는 하지만 갑작스런 질문에 아이들은 고개를 저을 뿐 묵묵부답이다. 민씨는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난 것부터 인천이 개항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이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었다.

중구청 정문에서 한 블록 내려와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자 이국풍 건물과 마주친다. 어디서 본 듯한 건물, 옛 중앙청을 미니어쳐 한 것 같은 이 건물이 바로 옛 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이다. 척 보기에다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이 건물은 늦겨울 분위기처럼 을씨년스럽게 일행을 맞았다. 고개를 들어 지붕을 쳐다보니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긴 하지만 둥근 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지붕 바로 밑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 난간이 설치돼 있어 색다른 느낌이다. 건물 앞에 설치된 문화재 안내판에는 '파라펫 난간'이라는 어려운 표현으로 적혀있다.

## 경제수탈의 거점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난간 밑에는 '조선은행 인천지점'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은 처음에는 부산지점의 출장소로 설치되었다. 부산이 인천보다 먼저 개항했기 때문에 은행도 부산지점의 출장소가 된 것이다. 그러다 1889년 인천지점으로 승격되었고 1909년에는 한국은행이 창립되면서 한국은행 인천지점으로 바뀌었다가 1911년 조선은행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조선은행 인천지점이 되었는데 그때의 이름이 그대로 간판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바깥 구경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로비가 일행을 맞는다. 중구 관광개발과가 사무실 겸 관광홍보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 중구의 관광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로비에는 세월의 때를 묻힌 기둥이 서 있고 2층에는 여단이 창문이 매달려있다.

관광개발과 사무실을 통과해 2층으로 가는 길목에는 당시에 사용했을 것 같은 대형 금고가 위압감을 준다.

##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시 유형문화재 제7호)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건물은 64평의 석조 단층 건물로서 1899년에 세워졌다. 설계는 일본인 니이노이에 다카마사가 했다. 당시 일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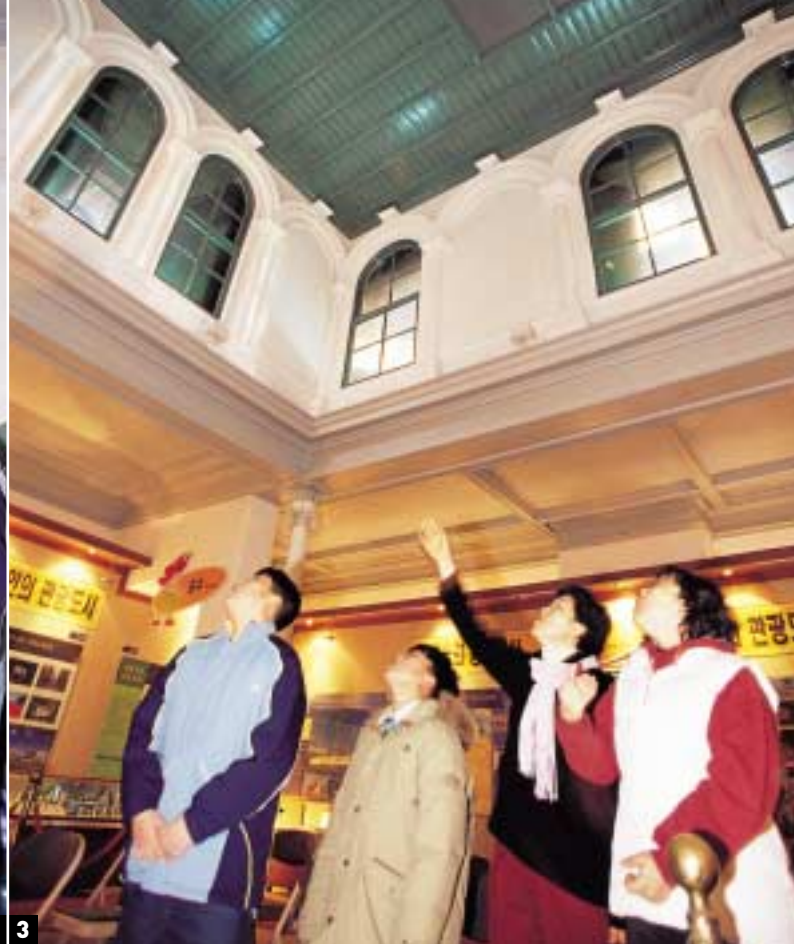
의 건축물은 목조에 의한 서구풍이었으나 벽돌 건축의 르네상스 양식이나 일본식 기와이음의 수법을 가미한 철충주의 양식이 유행이었다. 당시 제일은행 건물은 순수한 서구양식의 석조 건축물로 당시로서는 수준 높은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외형은 반원아치의 현관을 중앙에 두고, 머리에 르네상스풍의 작은 돔을 올려서 좌우 대칭으로 지은 건물이다. 외벽은 화강암으로 다듬어 쌓고 처마 부분에는 동그란 구멍이 뚫린 석조 파라펫 난간을 올렸으며, 지붕 용마루에는 바로크풍의 장식창(현재는 없음)을 시설했다. 지붕 용마루 부분과 돔을 동판으로 가공하고 기타 경사지붕은 원래 기와를 이었으나 지금은 개조되었다. 창건 당시의 건물 사진과 비교해보면, 중앙 돔 양옆의 작은 탑도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후기 르네상스 양식을 본떠서 단순화한 양식이다.





2 3



금고의 쇠문은 너무 무거워 두 아이가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다. 아이들은 “와, 여기에 돈이 꼭 차 있으면 정말 대단했겠다”는 등 놀란 표정이다. 문화유산해설사 민명숙 씨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이렇게 커다란 금고를 만들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켰다. 사실 제일은행은 한국화폐정리, 국고업무, 은행권 발행 등 1909년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한동안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 수탈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었다.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벽을 만져보았다. 벽돌로 꼼꼼히 쌓아 올린 덕분에 지은 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다. 건물을 지을 때 모래·자갈·석회를 제외하고 석재·시멘트·목재 등의 재료 일체를 일본에서 가져다가 당시 최고의 건물로 지었다고 하니 근대 역사에서 인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 어깨를 나란히 한 18은행과 58은행

오던 길을 되짚어 중구청 앞 작은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벽돌 단층 건물로 향했다. 또 다른 이국풍의 이 건물이 바로 지난해 새로 우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옛 일본18은행지점이다. 일본18은행 건물은 굳게 닫혀있는 문이 뭔가에 찌그러져 있고 유리창은 깨져있는 것이 눈으로도 금새 사용하지 않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출입구가 잠긴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내부

### (구)인천일본18은행지점 (시 유형문화재 제50호)



18은행은 일본이 한국의 금운계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어 세워진 은행이었다. 중앙동 2가 24번지에 1890년 준공되어 그 해 10월에 개점했지만 은행업무를 언제까지 계속했는지는 기록이 없는 상태이며 1954

년에는 한국흥업은행지점으로 사용되었다. 18은행은 단층으로 석축 콘크리트 건물의 외형으로 고전적 장식의 절충주의 양식이다. 출입구의 석주 장식 이 돋보이는데 벽체는 몰탈 마감으로, 기둥부위와 기단부위는 돌로 마감되어 있다. 지붕은 목조 트러스트 위에 일식기와로 모임지붕 형태를 하고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일본식 기와를 얹은 지붕하며 입구의 멋들어진 장식 등 건물의 외향만 둘러본 채 걸음을 옮겨야 했다.

이 건물과 한집 건너 이웃하고 있는 건물이 일본58은행인천지점이다. 58은행 건물도 척 보기에 예사롭지 않다. 건물 위에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외국 건물처럼 벽시계가 턱하니 걸려있고 2층에는 베란다가 있어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풍경도 괜찮을 듯 싶다.

사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오르는 계단은 일본집의 전형처럼 가파른 나무 계단이다. 2층에는 넓은 홀이 있고 작은 사무실도 자리잡고 있다. 오래돼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보았다. 멀리 자유공원이 눈에 들어오고 거리를 오가는 이들의 모습도 쉽게 눈에 잡힌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자본과 식량 등을 빼앗을 공리를 했을 일본인들을 생각하니 씩 기분이 좋지는 않다.

비록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 세운 은행건물들이지만 당시에는 수준 높은 건축양식을 자랑하던 건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 컷 담으며 누엠티 해님이 하는 풍경을 뒤로하고 오늘의 문화재탐방을 마쳤다.

### (구)일본58은행인천지점 (시 유형문화재 제19호)



중구 요식업조합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은 일본 오오사카에 본점을 둔 제58은행이 설치한 인천지점이었다. 1892

년 7월에 개점하였으며 이후 제58은행은 제3은행 등 군소은행과 합병하여 야스다(安田)은행이 되었다. 광복 후인 1946년 4월 1일 조흥은행이 인천지점을 개설할 때 이 점포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1958년 7월 신사옥을 건축해 이전함에 따라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은 석조 기단으로 되어 있고 2층 발코니와 아래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붕창이라 부르는 도머(Dormer) 창이 특징이다. 지붕은 2층의 경사를 이루는 맨사드(Mansard) 지붕이 조합되어 전체적으로 프랑스식 르네상스 양식을 보여준다. 내부 일부는 개보수되어 변경되었으나 오르내림식의 창문을 비롯하여 벽체·기둥은 아직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글\_ 정정애 · 사진\_ 김성환



4



5



6 7



1 저 지붕 좀 봐라, 특이하지? 2 당시에 썼던 것 같은 금고 3 문화유산해설사 민명숙 씨의 설명이 이어지고... 4 르네상스때 건물이 줄지어있는 중앙동일대 5 58은행 베란다에서 자유공원을 바라보며... 6·7 오랜만의 나들이에 포즈를 취해 본 참가자들



이 지면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로 구성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찾아가 보고 싶은 문화재와 가고싶은 날을 적어 편지(우편번호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편집팀 앞, 전화 440-2072)로 보내주세요. 특히 강화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1만원권 2매)을 드립니다.





1 40년 가까이 삼공기어는 한눈팔지 않고 양질의 기어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2 조각품 같은 기어들 3 불량률 제로에 도전한다 4 '외국 경영인' 창업주 형종호 회장 5 경영을 이어받은 형남진 사장 6 공장 전경

우 리 고 장 우 리 기 업 | 삼공기어공업(주)

# 40년을 한결같이 기어 이빨처럼 돈다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짐을 잔뜩 싣고 어디론가 떠나는 화물차... 경기가 안좋다고 하지만 한낫의 남동공단은 여전히 활력이 있다. 삼공기어공업은 송도해안도로 소래 방면 끝지점인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165블럭에 자리잡고 있다. 회사명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차량이나 동력장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동 부품인 기어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7, 8평되는 사장실 한켠에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기어가 마치 멋진 조각품처럼 전시돼 있다. 삼공에서 생산하는 아이템 수는 2천여 가지에 이른다. '기어'라는 이름이 붙은 기어는 이곳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셈이다. '요즘 기업 경영하기가 어떻냐'고 묻자 형남진(41) 사장은 '원자재 급등과 환율하락 때문에 죽을 맛이다'라고 하면서 'IMF 때보다 정말 더 힘들다'고 토로한다. 생산품의 65% 가량을 해외에 내다파는 삼공으로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최근에 받아 놓은 바이어의 주문은 취소시켜 버렸다고 한다.

## 삼공의 기계 멈추면 버스도 스톱

삼공기어는 우리나라가 한창 근대화를 위해 산업발전에 힘을 쏟던 1967년에 설립된 기업이다. 40년 가까이 한눈 팔지 않고 기어관련 부품만을 생산해온 보기도문 '외국기업'으로 140명의 직원이 지난해 170억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알차다. 이렇게 되기 까지는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형 사장의 부친 형종호(74) 회장이 30년 넘게 흘린 땀 덕분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던 형 회장은 대학 휴학 중에 임시로 철공소 사무원으로 취직하면서 경영인의 길로 들어섰다. 철공소를 그만두고 서울 보문동 구석에, 그의 표현대로라면 백묵으로 금을 그어서 9평짜리 공장 부지를 마련해 '원공사'라는 간판을 붙였다. 규모는 작았지만 일본에서 들여온 밋션 등 중고 자동차 부품을

수리해서 파는 사업은 당시에 기술력과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순조로웠다. 원공사 마당은 수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자동차로 매일 북새통을 이뤘다.

3년 후에는 아예 최신공작기계를 들여와 AS부품 생산업체로 변신하며 상호도 삼공기어공업사로 바꾸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회사인 새한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다.

기어 제작은 열처리 싸움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력은 보잘 것 없어서 국내산 기어는 마찰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지거나 문드러지기 일쑤였다. 도로 곳곳에는 운행 중 기어가 파손되어서 주저앉은 자동차가 부지기수였다. 형 회장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사이에 일본기어공업 등 선진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현해탄을 수없이 넘나들었다. 기술 제휴를 통해 마침내 일본 제품에 버금가는 트랜스밋션 기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광주고속, 한진고속 등 10여개의 고속버스회사에 AS기어를 납품했다. 품질이 워낙 뛰어나 고속버스 간부들이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온 종일 공장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 삼공의 기계가 멈추면 버스가 멈추던 시절이었다.

## 모범적 '외국경영'

1983년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생산품목을 점차 늘리고, 특히 열처리 공장을 신설하면서 서울 성수공단에 있기가 비좁은 느낌이 들었다. 1997년 7월 삼공은 마침내 남공공단 시대를 열었다. 이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주식회사로의 법인 전환,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등 기술력과 외형이 함께 커나갔다.

삼공은 소재를 투입 한 후에 각 공정을 회사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현재 열처리 시설까지 완비하고 있다. 가공의 자동화와 품질안정을 위해 특별히 원통 치차라인 등에 최신 C.N.C 장비를 도입하는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CAD와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등 기술력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주요생산품은 속비를 감속시키고 회전방향을 직각인 양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인 파이널 기어를 비롯해 변속이 쉽게 이뤄지게 하는 장치인 트랜스밋션기어, 상시 맞물림식 기어의 일종인 싱크로나이저, 그리고 자동차와 트랙터 및 전동기의 엔진기어 등이다.

이들 제품은 트랙터, 콤팩트 등 국내 농업용 기계제조업을 선도해 온 LG기계(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등 국내 굴지 기업들에 납품되거나 독자적으로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을 믿고 그들을 인정하며 앞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고 뒤에서 도와줬을 뿐"이라는 형 회장은 오늘도 기름 장갑을 끼고 현장을 돌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구동축 역할을 하고 있다.

글\_유동현 · 사진\_김정식



〈우리고장 우리기업〉에 소개되길 원하는 기업체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40-2072)



# 수원으로 살러 간 사내

## 채성병 시인

채 성병(蔡成秉) 시인이 수원으로 갔다. 시 쓰는 일 말고, 술 마시는 일 말고 더는 할 일이 없는 사내, 채 성병이 인천에 올 때처럼 그렇게 훌쩍 수원으로 살러 갔다. 거기서 살지 못하면 다시는 그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아프다.

10년도 넘게, 웃음 하나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 채 성병 시인이 환하게, 구부정하게 들어서던 신포동 약주집 골목이 적막하게 버려져 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 늘 비어 있는 듯한 허술한 얼굴, 그 얼굴 한복판에 또 언제나 순하게 걸려 있는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그 속의 죄 없는 눈, 가느다랗게 웃고 있는 눈.

80년대 초쯤이었던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사내가 느닷없이 서울을 버리고 내려와서 아내와 함께 신포동에 가게를 차렸다. 시랑(詩廊)이라는 커피 집이었다. 10평도 채 되지 않았던 작은 가게 한 편에 민음사나 문학과지성사, 창비 같은 곳에서 나온 시집들을 죽 꽂아 놓고, 매킨토시라는 스피커가 좋은 전축의 볼륨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집이었다. 아내는 커피를 팔고 사내는 많은 날들을 마시기만 했다. 그리고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긴 널빤지 의자에 배를 깔고 엎드려 시를 쓰곤 했다.

“형, 밥 안 먹었죠? 나갑시다.”

햇배 앳듯 희고 창백한 안색에 공기마저 더덕더덕 텃칠을 한, 한 되지 않은 시인이 있었다. 바로 이 말은 그 피곤한 인간이 아무 데도 오갈 데가 없어 거기 구석 자리에 와 주저앉으면, 벌떡 일어나 앉으며 그가 내댈진 언어였다. 백항아리가 아니면 미미집으로 향하자는 순수, 사람의 언어. 아름다운 음성.

“형,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가 마신, 아니 그 시절 그와 더불어 몸 안에 넣은 액체 빵의 부피가 과연 얼마나 될까. 누렇게 소금에 전 새우젓 안주에 약주를 한 양재기,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얹는 것이 500짜리 생맥주 한 잔. 이것이 그가 거의 매일 그의 근처에 속절없이 와 무너지는, 참으로 궁핍했던 인류에게 배푼 애정 어린 점심 식사요, 새참이면서 넉넉한 저녁이었다. 액체 빵은 그토록 달고 시원했던 황금빛 생맥주에 그가 붙인 이름.

최 병구(崔炳九) 시인이 가시고, 허무할 만큼 무더웠던 1980년대 초의 인천의 여름을, 생맥주에는 칼로리가 많아서 그렇게 부른다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액체 빵을 씹었다. 가게가 되건 말건, 개시를 했건 못했건, 그 액체 빵을 사기 위해 돈 통 바닥에 채수 돈으로 갈아 두는 몇 천 원을 툭툭 털어 내던 이 천진, 이 천둥벌거숭이! 더불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의 아내의 눈총이여!

“빨리 인천 가서 한 잔 해야 할 텐데…. 병원에 또 들어갈 것 같아요. 형, 시 정말 좋더라. 좋은 시 많이 써요. 아, 집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전화기 달래요. 난 전화가 없어요. 아, 형, 형….”







유배지(流配地) 수원에서 그가 이렇게 가끔 전화를 한다. 시 이야기하고, 누구의 안부도 묻고, 다시 술 이야기도 하고, 문득 죽은 자의 이름도 회상하다 보면, 몇 마디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10분이 지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여자고 남자고 무작정 끌어안고 파깝게 뺨부터 비벼대는 시인. 그는 당노도 아니고 술 습관이 든 사람도 아니다. 그는 아프지 않다. 유배 간 것도 아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그냥 외국으로 떠난 동생네 대신 수원에 몇 년쯤 살러 간 것뿐이다. 그래서 사내는 이렇게 아내의 전화기로 몇 사람, 인천 사람들을 물결처럼 불러 보기도 하고, 눈감은 채 홀로 인천 생각을 하면서 출렁거리기도 한다.

그가 여기 사는 동안에, 지금은 정치가가 된 소설가 김 홍신, 연극인 기 국서, 화가 이 청운 같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어디에서 그를 찾아왔었다. 윤 제림, 이 창기 같은 후배 시인들도 문단 등단 전에 자주 채 성병의 카운터에 와 마주앉곤 했다. 그림 하는 김 진안이가 기타를 치기도 했고, 이미 이십년 전에 떠난 화가 김 영일 선배가 백발을 날리며 입성하기도 했다. 그가 오는 날은 가게의 분위기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도 이 호인은 조금도 마다하는 기색이 없었다.

작고하신 우 문국 선생의 그 고요하면서도 칼칼한 강론을 듣는 날도 있고, 김 인홍 선생의 잔잔한 웅변을 가슴에 담는 행복한 날들도 있었다. 정 순일 선생의 티 없는 취기를 만나던 날, 아동문학가 김 구연 선배가 내놓던 유쾌한 방담의 날들, 술 냄새, 담배 연기, 웃음소리, 노래 소리의 그 수많은 날들, 날들.

소설가 심 창화 선생, 랑 승만 시인, 김 학균, 조 우성, 정 승렬 시인들, 성악가 이 필우 선생, 거구의 시인, 코보 최 승렬 선생. 그리고 인종(人種)으로 치면 그와 가장 근사(近似)한 성정 인자(性情因子)를 가졌었을 시인 손 설향 선생! 짧게, 서둘러 살다 간 송 서해, 이 효윤 두 시인. 이런 향기로운 사람들과 그는 인천에 흠뻑 빠져 수평선처럼 살았다. 그러다 수원으로 갔다.

그를 일러 평생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내라고 해도 옳을 것이다. 그는 눈을 크게 뜨거나 목소리를 높여 남과 다툰 적이 결코 없다. 대신 이제는 크게 기뻐할 줄도 모른다. 화를 내지 않고 살다 보니 이제는 기쁨이나 언짢음 같은 감정도 다 안으로, 안으로 삭아서일까. 그는 이제 좀 못 생긴 돌부치의 속을 닦아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인천 그리움은 못내 씻어지지 않는 병. 천석고황(泉石膏肓).

“며칠째 꿈쩍도 않는 방  
내 방은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잠이 들어 깨어날 줄 모르고  
며칠째 별이 뜨지 않는 방  
나는 나흘 만에 외출을 한다.”

1989년에 나온 그의 첫 시집 『별을 찾아서』에 실려 있는 표제시의 한 구절. 이 시처럼 며칠씩 꿈쩍 않고 방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인천이 그리우면 대절 택시를 타고 내려앉는 황혼 속을 달려온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몸살 나도록 서둘러 인천으로 오게 하는 것일까. 스스로 “한 번 떠난 자는 돌아오지 않았다.”면서도 누구 출판기념회에도 와서 술 대신 밥을 먹고, 맥주집 ‘흐르는 물’에도 불쑥 불쑥 나타나 녹차를 청해 마신다. 또 두어 달 전 문 닫은 ‘솔로’에 와서는 그 옛날 누구, 누구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뺨을 비비기도 했다.

며칠 만에 잠깐 채 성병이가 이렇게 인천에 오면 정말 ‘무명(無名)’이었던 시 몇 구절이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걸어오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저기 신포동도 월미도도 자유공원도 모두 다 지난날처럼 잠이 깬다.

이제 머지않아 그는 다시 인천에 올 것이다. 잠시 빌려 산 수원은 거기다 그냥 두어 두고 시 몇 편 손에 든 채, 아내와 함께 인천으로 돌아오겠지. 쑥대밭 같기도 하고 물 빠진 빨밭 같기도 한 사내, 채 성병 시인, 시인 이어. 그래서 거기 부는 바람소리처럼 착한 사내여. 그가 정말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경 속에서 그 가늘게 찢어지고 있는 웃음을 옛날처럼 다시 만나고 싶다.

글\_ 김윤식(시인) · 사진\_ 김보섭(사진작가)



# 수리수리 마수리 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동아리는 인천의 신흥 명문 계양고등학교의 마술동아리 I-Ris 입니다.

I-Ris 동아리원들과 인천시 청소년 웹진 M●●의 기자들이 2월 15일 계양고등학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I-Ris : 안녕하세요! 계양고등학교 마술동아리 I-Ris 입니다.

기 자 : 동아리 분위기가 매우 활기차고 좋군요. 네, 그럼 우선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I-Ris : 저희 마술동아리 I-Ris는 1기에 6명이 활동을 했고 현재 2기 9명만 활동 중인데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3기를 10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기 자 : 그렇군요. 그럼 동아리 이름이 I-Ris 인데요. 무슨 특별한 뜻이라도 있나요 ?

I-Ris : 네, 좋은 질문입니다!! Imagine Rise(상상한 것을 나타낸다)를 간단히 줄여서 I-Ris 라는 동아리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예술인 마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동아리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기 자 : 아, 보기와는 달리 깊은 뜻이 있었군요. 어느 학교에나 마술부가 있기 마련인데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있나요?

I-Ris : 저희 동아리는 인천 마술동아리 연합 모임에 참가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요, 교외 활동으로 다른 학교 창조 공연이나 양로원 등을 찾아가 무료 위문 공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축제 때는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회비를 걷어서 마술 카페에 들러 프로 마술사들의 마술도 구경하고 마술 도구도 사온답니다. ^^

기 자 : 마술을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마술을 배우세요?

I-Ris : 마술은 그 특성상 아무나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술 동영상 몇 십번씩 보면서 연구하고 연습한답니다.^^ 절대 쉬운게 아니죠.

## 계 양 고 마 술 동 아 리 I - R i s



기 자 : 새로 생긴 동아리답게 매우 열심히 활동하시는군요. 그럼 이렇게 마술을 열심히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I-Ris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환상이나 꿈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나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같이 공감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마술을 보면서 잊어버렸던 꿈이나 환상을 영화나 상상이 아닌 직접 현실로 보여드리고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마술을 열심히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기 자 : 아, 그렇군요 ! 그럼 마술을 하면서 힘든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I-Ris : 음... 힘든 점이라기 보다는..., 마술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너 걸리면 죽어~!!', '넌 왼손 봐 난 오른손 볼게' 라며 마술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_=) 하지만 소수만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면 신기해하거나 좋아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이런 점들이 가장 좋은 점 같아요.

기 자 : 마술을 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같은건 없나요?

I-Ris : 에피소드라기 보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마술을 보여드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데 마술 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쳐드리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면 "에이~ 사기다", "정말 쪼잔 하네" 그러는데 그냥 하나의 즐거운 쇼를 보셨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 자 : 저도 마술을 의심하면서 봤는데 이제부터라도 재미있게 즐기도록 해야겠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I-Ris : 마술을 생각하실 때 그냥 남을 속이는 것 또는 사기치는 것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마술은 트릭만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5분의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선 세팅이 1시간 정도 걸리구요. 그 마술을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은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업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마술사도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하나의 즐거운 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http://cafe.daum.net/kyeyangiris>로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 주세요.)

글 \_ 김겨성 (계양고등학교 2) · 사진 \_ 김성환

## 인천의 신흥명문 '계양고등학교'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위치한 계양고등학교는 이제 5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신생 고등학교이다. 역사와 전통은 비록 짧은, 작은 날개를 가진 학교지만 '명예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여러 우수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더 높이 도약하려 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학업 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보이고 있어 이번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인천 최고 득점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계양고등학교는 이제 인천의 새로운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큰 날개를 펼쳐 더 높은 창공에서 더욱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학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계양고등학교 홈페이지 \_ <http://www.kyeyang.hs.kr>

이 지면은 우리시의 청소년웹진인 MOO(<http://moo.incheon.go.kr>)의 학생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MOO 기자들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나 우리학교 자랑거리가 있으면 <굿모닝인천>편집실(우편번호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편집팀 앞, 전화 440-2072)로 알려주십시오.



# 굿모닝 어진이네

시티투어를 하면  
인천의 관광명소를  
일목요연하게  
보게 되지!

(제15회)  
시티투어 편

글·그림 박두리

시티투어란 인천을  
찾는 내·외 관광객  
들이 인천의 도심과  
인천의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도록

99년 8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인천 시내 순환관광  
버스 여행을 말합니다

시티투어 노선은 크게  
시내노선과 공항노선 그리고 테마관광 코스  
세가지로 나뉩니다.



시내노선 탑승권은  
시티투어 탑승할 때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죠



공항노선과 테마관광 승차권은 출발지인  
인천역앞 관광안내소내  
(주)청송관광 직원에게서 구입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모십니다!

1회권 승차권은  
성인기준 1,000원으로  
시내버스처럼 목적지까지  
한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일권 승차권(5,000원)은  
원하는 목적지에서 마음껏  
둘러본 후 하루동안 몇 번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테마관광 코스(강화 10,000원, 소래 4,000원)는  
4월~10월 중에 운행하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시티투어 문의는  
시 관광정책과 440-0095  
또는 (주)청송관광 469-6060  
으로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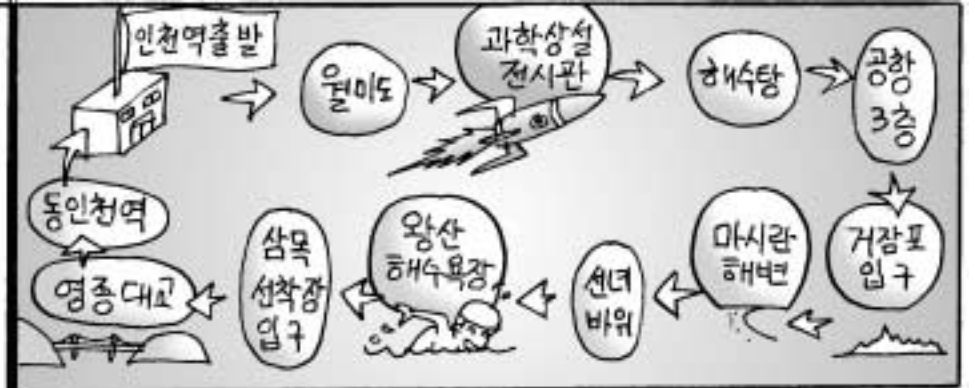
## 1. 시내노선 45km

- ① 11:00 ~ 16:00
- ② 18:00종료
- ③ 1회당 2시간 소요
- ④ 배차간격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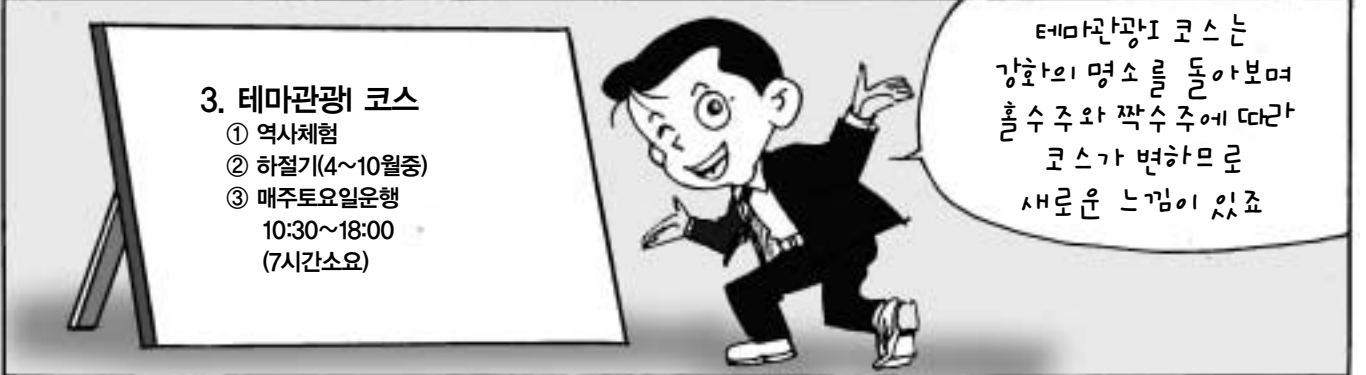
## 2. 공항노선 90km

- ① 1회당 3시간 소요
- ② 배차간격 1시간 30분
- ③ 하절기(4~10월)  
08:15~18:45  
(21:30종료)
- ④ 동절기(11~3월)  
09:45~17:15  
(20:00종료)



## 3. 테마관광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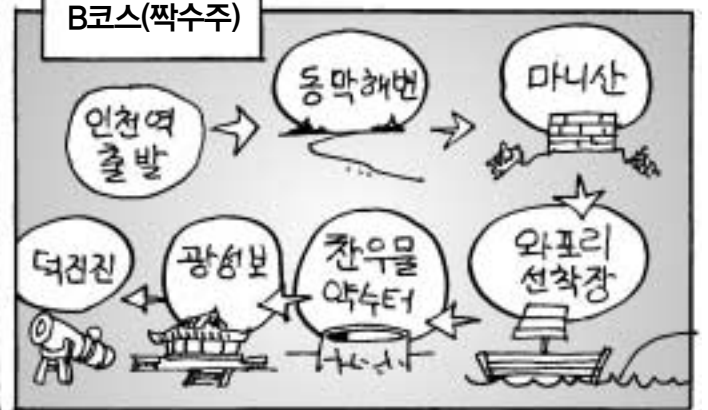
- ① 역사체험
- ② 하절기(4~10월중)
- ③ 매주 토요일운영  
10:30~18:00  
(7시간소요)



### A코스(홀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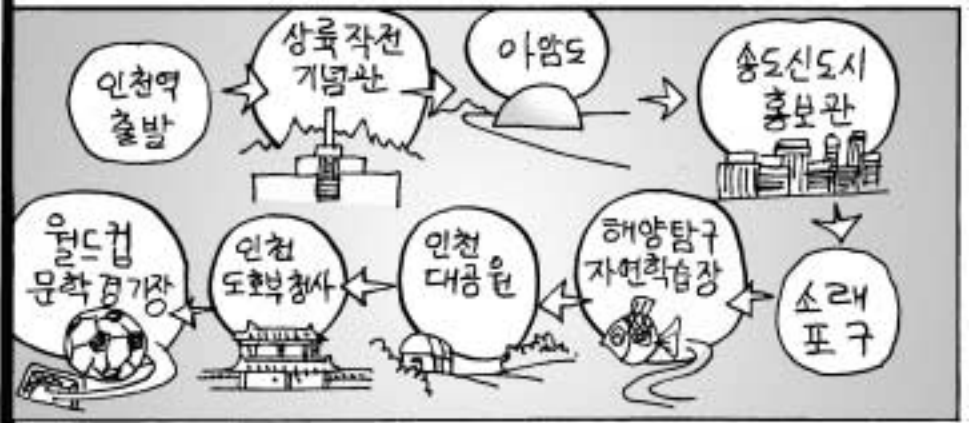


### B코스(짝수주)



## 4. 테마관광II 코스

- ① 소래포구
- ② 하절기(4~10월중)
- ③ 매주 일요일운영  
10:30~18:00  
(소요시간7시간)







글 \_ 백승정(한국병원 부원장)

## ‘육신 육신’ 이젠 걱정 ‘끝’

노인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흔히 겪는 만성 통증은 정말 참기 힘든 질환이며,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육신육신 쭈셔대는 통증을 감당하기란 어렵다.

병원을 찾아도 특별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통증의 고통을 진통제 등 약물로 이겨내기 일쑤이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경자극요법(IMS)이 우리 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수 침으로 제작된 신경자극요법(IMS)은 만성통증의 주된 치료법인 찔질이나 마사지와 마찬가지로 신경 반사를 이용하여 치료하지만 효과는 더 즉각적이고 강하다.

만성통증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주로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과 인대 등, 연부 조직의 질환으로 발생하며 CT나 MRI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IMS시술은 촉진과, X레이, MRI 검사 등을 통해 병소를 찾아낸 후 특수 바늘이 내장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부위의 근육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치료법은 두통, 요통, 오십견, 관절통 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사고로 생긴 통증이 수주가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등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이 치료법은 주로 침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침 끝에 전극을 부착해 전기 자극을 주기도 한다. 주로 척추 주위를 치료하는데 침을 척추 주위 근육의 일정 부위에 넣어 신경반사를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신경의 잘못된 정보전달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 치료원리다.

침 자극 시간은 1회당 10~15분, 전기 자극 시간은 15~20분 정도로 시술 시간이 짧고 치료 횟수도 1주일에 1회 정도이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3~5회 정도만 치료해도 아픈 부위의 통증이 없어진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물리치료법 중 전기 자극요법과 침을 사용해 문제가 되는 근육 부위의 직접 전기 자극을 주고 또 침 자체의 자극으로 통증을 서서히 줄이는 치료법으로 만성통증 환자 또는 디스크 환자들에게 이 치료법을 병행하면 70%의 효과를 볼 수 있다.

IMS 대상 환자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두통, 요통, 관절통, 오십견, 엘보 등 근골격계 질환이나 사고로 생긴 통증이 수주가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등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법이다. 침 자극이나 전기 자극에 민감한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치료 후 침 자극에 의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이며 임신부나 심장 조율기를 부착한 환자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 치료법을 받으면 안된다.

### 신경자극 요법으로 효과가 높은 질환

1.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근골격계 통증. (조금만 무리하면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아픈 것이 반복된다.)
2. 두통, 요통, 신경통, 오십견, 다친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통증.
3. 예리다, 시리다, 저리다.
4. 근막염, 건염, 건초염, 손목통증, 테니스엘보, 어깨 결림, 디스크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학전문가들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 440-2073

## 우리반 입학생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맡게 되어 3월 초 입학식을 치르는데 우리 반 아이 중 한 아이가 유난히 엄마를 찾으려 불안해하더니 급기야는 입학식을 다 치르지도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중에는 유난히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가 종종 있어 그런 아이인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후 수업시간 중에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구르며 일쑤였고 늘 엄마를 찾으려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그 아이 엄마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았다. 엄마의 말인즉 아빠가 술을 드시면 아이들을 연장으로 때리는 버릇이 있는데 누나는 좀 커서 아빠의 폭력을 피하지만 작은 애인 우리반 아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늘 아빠가 던지는 망치며 펜치 같은 연장에 맞아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빠의 오토바이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면 아이가 매우 불안해하며 엄마의 치마꼬리를 잡고 놓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집에 있는 엄마가 혹시 어디 나가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에 공부를 다 마치고도 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이번 기회에 아빠가 아이를 때리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이모네 집에 잠시 다녀 올테니 그 동안 아이가 결석을 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엄마가 돌아간 후 아이의 몸을 살펴보았더니 아이의 몸이 말이 아니었다.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등과 팔, 다리 쪽에 온통 퍼런 멍이 들어 온 몸이 울긋불긋했던 것이다. 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던지. 세상에 저 귀엽고 조그만 1학년 아이의 몸을 어디 때릴 데가 있다고, 더군다나 아빠가... 그 애 없는 일주일동안 교회에 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 제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 그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다른 평범한 아빠처럼 이 아빠도 아이가 예쁘게만 보이게 해 달라고... 내 아이인양 그런 아픈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던 며칠 후 기적처럼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엄마의 설명인즉 아빠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때리는 일 없이 생업에 열심히 매달리며 아이들을 사랑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얼마나 기쁘던지... 지금 생각하면 그 아빠가 폭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잠시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 후 학교의 1학년 꼬마들이 입학할 날이 다가오면 지금은 씩씩한 고등학생으로 자라고 있을 그 애 얼굴이 떠올라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지어지고 지금은 화목하게 살고 있을 그 집 식구들 생각이 나 마음이 푸근해진다.

이경희 (남구 송의4동)



## 잊을 수 없는 입학식

사람들에게 있어 입학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도하며 그간 소원했던 가족 간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성장과정에서 나는 유독 부모님과 트러블이 많았다. 부모님은 대화를 모르시는 분 같았고, 항상 지시와 핀잔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성격이 강한 아이가 아니었던 나는 항상 그런 부모님의 신뢰감을 받지 못했고, 항상 걱정거리로, 못 믿을 아이로 남았다.

이윽고 나에게도 기회는 왔다. 고3을 시작하는 겨울방학 때 나는 다짐했다. 고지식하고 엄격한데다 무뚝뚝한 부모님이 싫었다. 그런 부모님에게 벗어나고픈 마음에 나는 대학만은 고향근처가 아닌 다른 도시로, 가능한 멀리 대도시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결국 내 의도는 성공했고 나는 내가 바라던 인천에 있는 대학으로 시골에서 유학을 오게 되었다. 부모님은 못내 걱정스러워 하시면서도 내 유학을 용인해 주셨다.

부모님과 함께 자취집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자취에 필요한 도구를 사고,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는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밥술에 밥을 안치는 방법부터 기본적인 밑반찬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나는 다가오는 대학생활에 설레기도 하고 한편 부모님을 벗어나는 것이 기뻐다.

입학식이 있는 후 부모님과 함께 한 시간이 끝나고 부모님은 막내만을 남기고 고향으로 떠나시고 나만 학교 근처의 자취 집에 홀로 남겨졌다. 혼자 남겨진 나는 웬지 울음이 나왔다. 입학식이 있던 그 날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입학식장인 대운동장으로 가는 교정에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에서 파스함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손을 놓칠 뻔했다. 누가 먼저 잡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다만 표현이 부족했던 게다. 막내인 내가 대학에 입학한 사실에 만족해 하셨다. 좀체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

그렇다. 오히려 그간 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을... 왜 나는 내가 다가가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고파 나는 대도시인 인천으로 자취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길 것 만 같던 대학 4년은 훌쩍 지나가 버렸다. 세월이 많이 흘러 돌이켜 보면 대학생활은 순식간이고 짧아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입학식 때 아버지와 내가 서로 느꼈던 따뜻한 손길만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항상 내 가슴속에 영원할 것 같다. 그때가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

박우영 (계양구 병방동)



### 다음달 테마는 '나들이'입니다

'나들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3월 20일 까지 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 시작이라는 설레임을 간직한 선생님

칼날 같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겨울도 이제 거의 지나간듯 합니다. 밖에 나가면 어느덧 목련 나무 가지에 꽃봉오리가 조그맣게 피어나고 있고요. 요즘 부는 바람에는 웬지 모르게 봄냄새가 물씬 나고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따뜻한 바람과 함께 이즈음 '시작'이라는 말 또한 가슴깊이 다가옵니다. 시작이라는 말 만큼 두근거리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시작과 뿔레야 뿔 수 없는 입학. 유치원 입학식의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식은... 새 가방과 실내화를 머리 위에 두고 잤던 기억이 나는 걸 보니 정말 기대하고 가슴 설레었나 봐요. 중학교 입학식은 난생 처음 교복을 입고 단발머리를 자르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아이들 뒷모습이 다 똑같아서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손을 꼭 잡고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입학식은 대학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해서 그런지 벌써부터 수험생이 된 듯한 묘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식 때는 해방감과 자유라는 들뜬 기분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여러 해의 봄을 맞았네요. 그리고 이번 봄에는 정말 가슴 설레는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 그랬던 것처럼 새 가방과 실내화를 머리 위에 두고 가슴 설레며 잠 못 이룰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선생님... 앞으로 향긋한 봄나물 같이 싱그러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겠죠?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고 신나기만 합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신 선생님들처럼 저도 아이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겠지요?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꾸짖으시던 선생님들처럼 저도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 수 있겠지요? 많은 이야기로 꿈을 주시던 선생님들처럼 저도 아이들 가슴에 희망을 줄 수 있겠지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요. 하지만 이번 봄에는 최고로 신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시작이라는 가슴 설레임을 간직한 선생님이 말예요.

박상희 (서구 신현동)



### 준비~ 출발!

스타트라인에 선 아이들이 긴장감 속에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 저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3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인생들에 화팅- 김미영 (연수구 동춘동)



### 중학생생활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아들들아 졸업 축하한다" 이제는 중학생이 되는구나. 좋은 친구, 좋은 추억들 간직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차게 나아가길, 인생에서 소중한 친구들도 많이 만나길..... 천혜경 (부평구 산곡동)

### 중년부부의 사랑의 불레로

뒤늦은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어느 중년 부부의 멋진 사랑의 시작(불레로). 시작은 늦었지만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많이많이 사랑하시고 행복하세요. 최경열 (계양구 계산3동)

### 첫아이의 입학식날

학교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더 설레었습니다. 이제는 삼학년이 되네요 이정숙 (남동구 간석4동)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인천가톨릭대 사회교육원에서 불학기 수 강생을 모집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교 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인천가 톨릭대학교 총장 및 사회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및 민간협회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교육기간** : 3월 2일(화) ~ 6월 12일(토)
- **모집기간** : 3월 30일(화)까지
- **교육과정** : 미술 (플라워디자인과 전례 꽃꽂이, 서양화, 인물데생, 서예, 미술치 료) / 교양 (재무회계, 사진표현교실, 디 지털카메라, 수지침) / 전문지도사 (아 동미술, 종이접기, 방과후, 특수아동, 독 서, 노인교육지도사)

**교육 장소 및 문의** \_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 원(남동구 간석4동 438-8131~4 http://life.iccu.ac.kr/ )

여성복지관 직업 및  
문화아카데미교육생 모집

우리시 여성복지관에서는 여성의 풍요로 운 삶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전문 교육 및 문화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합니다.

- **모집일시 및 방법**
  - 문화아카데미 : 3월 16일(화) 10:00 추첨 또는 선착순
  - 직업전문교육 : 3월 18일(목) 10:00 추첨 또는 선착순
- **교육대상** : 인천거주 여성. 단 컴퓨터활 용능력자격증(야간)과 웹디자인(야간)은 남성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직업전문교육
    - ▷기초반(18개과목20개반) : \*한식조 리실습Ⅱ, 한식조리기능사(오전·야 간), \*양식조리실습Ⅱ, 중식조리기능 사, 일식조리기능사, 김치전문, 한국 자수, 왕골공예, 규방공예, 제과제빵 기능사, 도배기능사(오전·오후), 미 용기능사, 한복기능사, 양재기능사,

실용의상, \*PC활용, 컴퓨터OA, 컴 퓨터활용능력자격증(야간)

- ※(\*) 강좌는 학점은행 인정 과목으로 서 각 3학점 취득
  - ▷연구반(12개 과목 12개반) : PC정비 사, 한복연구, 생활한복, 폐백이바지 음식, 떡한과, 케이크&홈베이킹, 미 용창업, 피부특수관리, 실용의상연구, 홈페이지제작, 포토샵, 웹디자인(야)
  - 문화아카데미 : 꽃꽂이, 손뜨개, 왕골 공예, 훌패션, 동양화묵화, 민요가락, 서예문인화, 한국무용, 발건강관리 (주·야반), 수지침, 스포츠마사지, 기 공&태극권,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수 채화, 기초실용영어, 기초실용일어, 기초실용중국어, 꿈꿈컴퓨터, 파워노 래교실, 특선요리(야), 반찬요리(야), 과자케이크빵(야),
  - **교육기간** : 4월 6일~6월 30일 (3개월)
  - **수 강 료** : 기초반 월 10,000원, 연구 반 월 12,000원
  - **준 비 물** : 신문증, 기별 수강료
- 문의** \_ 여성복지관 교육팀 (425-1362, 440-6556~8//women-center.inpia.net)

보험료 자동이체로  
경품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건강보험 가 입자 중 새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세대에 게 매월 경품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220만원 상당의 노트북, 대형TV, 대형 냉장고, 제주도 가족여행 상품권(4인기 준), 일산병원 건강검진권(2인) 중 하나를, 또 2등 8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캠코 더,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주도여행 상품권(2인기준), 일산병원 건강검진권(1 인) 중 하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c.or.kr)나 은행(건강보험증, 통장, 도장지 참), 유선(1588-1125) 등으로 할 수 있습 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인천지역 노인 무료 안과검진 및  
돌보기 지원 사업

대한노인회 인천연합에서는 삼성안과 협 찬으로 안과검진 및 돌보기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대한노인회 인천연합 및 노인지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입니다.

- **기간** : 2월 9일 ~ 7월 31일 (6개월)

터미널시네마 <태극기 휘날리며> <그녀를 믿지마세요>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에서는 3월 한달 동안 1관에서는 강제규 감독의 <태극 기 휘날리며>를, 2관에서는 김하늘 주연의 <그녀를 믿지마세요>를 상영합니다.



- **상영일시** : 2월 20일부터
- **관람요금** : 일반 6천원, 학 생 5천원
- **주차편의**
  - 남측·서측의 터미널 직 영 주차장 : 50%할인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 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 증 소지자 무료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 **검진장소** : 인천 삼성안과 (남동구 구월동)
- **시간** : 병원 진료시간과 동일
- **대상** : 대한노인회 인천연합 및 노인지 회에서 추천하는 노인
- **내용** : 무료 안과종합검사 및 돋보기 지원
- **제출서류** : 독거 노인의 검진 추천서 (각구 노인회에서 발급가능)

**문의** \_ 삼성 안과 (442-5181)

인천해양경찰서 1일 명예교사제 운영

인천해양경찰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합니다. 3월 개학과 함께 시작되는 명예교사제는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신청에 따라 월 1~2회 방문해 실 시되고 해양환경 오염사진 전시회가 병행 됩니다. 그 중 모범 어린이들을 인천해양 경찰서에 초빙해 경비함정과 공기부양정 에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교육내용** :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사진 전시, 해양경찰 임무 등 소개(강의 및 홍보 VTR상영), 해양경찰 활동상, 해양 오염 감시 및 예방
- **치안현장 견학** : 경비함정 및 공기부양 정 승선체험, 갯벌탐방, 항공대 및 특공 대 체험 견학 등

희망하는 학교 및 단체는 인천해양경찰서 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 \_ 인천해양경찰서 경무과 (884-7000)

제15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인천호스피스는 창립된지 10년이 되는 단 체로 인천에서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유 일한 가정 및 병원 산재형 호스피스입니 다. 인천 시내 병원의 주치 의사로부터 의 퇴 받은 말기암 환자화 그의 가족에게 요 구되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사회 적 문제들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성직 자,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 자원봉사자 가 팀을 이루어 돌아보아 주는 기관이고

4월 13일은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 **선거인명부 작성**
  - 명부작성 : 구청장·시장·읍장·면장
  - 기 간 : 3월 27일(토) ~ 3월 31일(수) (5일간)
  - 대 상 : 선거일전 19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부재자 신고안내**
  - 기 간 : 3월 27일(토) ~ 3월 31일(수) (5일간)
  - 수 신 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 읍 면의 장(서면으로 신고)
  - 부재자신고 대상자
    - ⇒ 선거일 현재 20세 ('84. 4.15생까지)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다음 요건에 해당 하는 자
  -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 군 밖으로 떠난 자 로서 선거일(2004. 4.15)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전국 구 시 군,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 운 곳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접수** : 3월 31일(수) ~ 4월 1일(목)
- **선거인 명부 열·공람 및 이의신청** : 4월 1일(목) ~ 4월 3일(토)
- **부재자 투표**
  -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4. 9(금)부터 4. 10(토)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에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투표를 하러 가실 때는 신분증과 부재자투표봉투(봉투3개 및 투표용지)를 반드시 지 참하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금지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4. 2. 15 ~ 4. 15)
  - 금지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 제공,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선전, 각종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 등 방문, 통·리·반장 회 의에 참석하는 행위,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 **선거기간중 회의·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기 간 : 선거기간중 (2004. 4. 2~ 4. 14)
  - 대상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 주민자치위원회, 향우회·종친회·동창회

- **의정활동 보고금지**
  - 대상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2004. 1. 16~ 4. 14)
  -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를 통하 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문의** \_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http://ic.election.go.kr)



모든 경비는 무료입니다.  
호스피스 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호스피스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모두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 자원 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시 : 3월 11일(목)~5월 13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 장소 : 인천사랑병원 세미나실 (7층)
- 교육비 : 60,000원(교재 및 문방용품, 기념품 포함)
- 대상자 : 호스피스 봉사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남, 녀 누구나 선착순 35명

문의 \_ 인천호스피스 (433-0146)

농업기계 순회수리 정비교육



우리시 농업 기술센터에서 는 농업기계 고 장 진 단 과 간 이 수 리 정

비를 통해 농기계의 수명연장과 기계비용 을 절감하기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 정비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기계 수리에 들어 가는 부품은 기종당 연 5만원, 농가 당 5 기종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수리정비 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농기계의 자가 진단 및 수리정비능력배양과 농기계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요 령 교육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농업인은 지 역별일정(htt://agro.incheon.go.kr)을 참 고하여 가까운 지역에 참여하면 됩니다.

- 기간 : 2월 17일~ 5월 7일
- 방법 : 각 지역별 순회
  - 연수구(2.17~19), 계양구(2.20~3.1), 서구(3.16~31), 남동구(4. 1~14), 중 구(4.15~5. 4), 부평구(5. 6~ 7)

문의 \_ 시 농업기술센터 경영정보팀 (440-6375)

택시요금 이제는 교통카드로 지불하세요

-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신속하고 편리하게 택시운임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불편이 없습니다.
  - 세금공제 혜택과 신용카드복권에 자동 참여하게 됩니다.
  - 카드사용 우수자에게는 추첨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 교통카드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접촉(터치)만 하시면 됩니다
  - 분실 또는 사용이 정지된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가 있습니다.
  - 선불교통카드는 현금으로 구입하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이베스트카드, A-케시, 서 울교통카드 등)
  - 후불교통카드는 각 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카드입니 다. (삼성카드, 국민카드, 한미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BC카드, LG 카드 등)
- 선불교통카드는 버스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선불교통카드는 1만원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선불교통카드는 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912)



문학경기장 무료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학경기장에서는 무료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단, 유소년영어축구클럽은 초등생에 한함)
- 신청기간 : 수시접수

프로그램명	운영장소	개강일	운영시간	강습요일	기타
문학경기장 자전거 학교	야구장 1층	2월23일	오전:10시~12시 오후:13시~15시	월~금	무 료 (선착순 접수)
단학기공	보조경기장 옆 문학정	4월6일	새벽:6시~7시	월~금	무 료
아침건강 체조교실	보조경기장	4월6일	새벽:6시~7시	월~금	무 료
배드민턴 교실	배드민턴 장	4월6일	오전:10시~12시	월, 수(주2회)	무 료
운동처방 및 스포츠 마사지 무료센터	보조경기장 (지하1층)	4월6일	10시 ~ 18시	월~금	무 료
문학경기장 조깅 동우회	보조경기장	4월6일	저녁 : 19시	월~금	무 료
유소년 영어 축구 클럽 (영어로만 수업)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4월6일	· A반:16시~18시 (1,2,3학년) · B반:17시~19시 (4,5,6학년)	월, 수 (주2회) 화, 목 (주2회)	유료(50,000원) (외국인 지도자가 직접 지도)

문의 \_ 문학경기장관리사업소 456-3020, www.munhak.or.kr)

화 폭 에 담 긴 인 천 풍 경 ⑪ | 이철명 <강화의 아침>



<강화의 아침> 종이에 수채, 49.5×70cm, 1999

이철명 화백은 1959년 경기미협사무장을 시작으로 경기미협부지회장(1966), 한국미술협회경기도지부장(1976), 예총경기도지부장 (1977~1980), 예총인천직할시지회장(1981), 한국미술협회인천직할시지회장(1981~1982) 등을 역임하며 예술계 지도자로 척박한 향 토문화의 재건과 예술인들의 권익옹호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그는 한국수채화협회부회장, 한국수채화회고문 등을 지내며 지역화단과 중앙화단과의 연대에 힘쓰는 한편 경기도미술대전(1982년부터 인천직할시 미술대전)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후진 발굴에 힘써왔다. 젊은 이철명이 활동가로, 예술계의 지도자로 인천 예술계의 중차대한 일들을 풀어나갔다면, 70년대에 이르러 그는 몇 번의 유화개인 전(69, 70, 71, 75, 76)을 연 이후 80년대에는 수채화가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인천은 국내 지역화단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채화의 수준이 높은 곳이었다. 이철명 선생은 그 이유를 '청관문화' 때문으로 말하 곤 하는데, 즉 청관이라는 이국적 정경이 학생들을 끌어들이 그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관의 울긋불긋한 원색들의 조화가 화심(畫心) 을 부추기고 중 · 고등학교시절부터 이러한 경관을 그리다 보니 자연히 인천연고의 화가들은 풍부한 색조의 생동감 있는 수채화를 그 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화단에서 인천은 박영성(전 인하대교수), 안영(전 한국수채화협회회장), 이철명 화백 같은 걸출한 수채화가들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어느덧 고회를 훌쩍 넘긴 이철명의 수채화는 바야흐로 초법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연무(煙霧)가 걷혀가는 강화들녘의 아침풍경을 무채색조로 사색한 이 그림을 보면 색채, 형태, 표현 등에 있어 사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비사실성 에도 불구하고 그 모호성이 오히려 경험을 명료하게 해주고 직접적인 사실표현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감을 확보한다. 대상의 이미지를 담담하게 그려내는 가운데 표현된 대상은 격조 있는 윤필에 의해 생동하고, 거친 듯한 화면은 화가의 연륜에 의해 달성된 힘의 제어 에 의해 역설적 고요함으로 다가온다.

글 \_ 이정모(인천대학교 겸임교수/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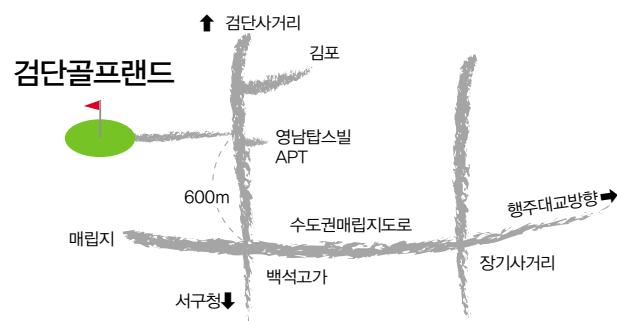


\* 검단골프랜드 퍼블릭 코스와 연습장의 실제 모습.

# 인천에 이런 곳이 있었나?

빌딩 숲 속의 연습장, 부킹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휴양지에 온 기분, 별장과 같은 자유로움  
고품격의 자부심이 여러분 곁에 다가왔습니다.

검단골프랜드에서 파 3, 9홀 퍼블릭 코스를 경험하십시오  
자연 속에 위치한 비거리 300야드 연습장(Auto tee-up system)



**GD** 검/단/골/프/랜/드  
Geom Dan Golf Land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 ☎ 032-567-0070